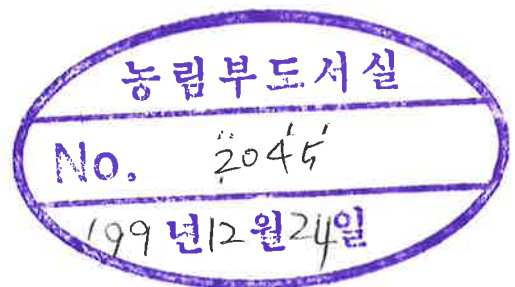


행정간행물등록번호  
31000-51110-58-66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9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 시행내용보고서

1999. 12



대한민국정부

본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음.



# 목 차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	3
1. 목표 및 방향 .....	3
2. 제1단계 구조조정사업 추진성과('92~'98) 및 평가 .....	6
3. 제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	13
4. 제2단계 수산업·어촌 투융자계획 .....	18
5. '99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19
II.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제도개혁 .....	24
1. 협동조합의 개혁 .....	24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31
3. 농업생산기반관리조직의 개혁 .....	41
4. 농정추진조직개편 및 행정규제개혁 .....	44
II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53
1. 경쟁력 있는 경영주체의 육성 .....	53
2. 생산기반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	59
3. 농업관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	71
4. 농림어업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정보화 .....	75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대책 .....	85
6. 친환경농업의 육성 .....	93

7.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의 추진 .....	100
<b>IV. 경쟁력강화를 위한 분야별 주요시책 .....</b>	<b>104</b>
1. 쌀 산 업 .....	104
2. 원예산업 .....	108
3. 축 산 업 .....	111
4. 임 업 .....	122
5. 수 산 업 .....	135
<b>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시책 .....</b>	<b>140</b>
1. 다양한 소득원 개발 .....	140
2. 기초생활환경 개선 .....	143
3. 교육여건 개선 .....	148
4. 농어업인 연금제도 실시 .....	152
5. 의료여건개선 .....	153

#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 1. 목표 및 방향

'99년도는 21세기 정보화·지식기반사회라는 새로운 여건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제2단계 2004년까지의 새로운 「농업·농촌투융자 계획」을 수립·시행한 첫해이다.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행되었던 제1단계 투융자의 결과로 농림수산업을 생산기반이 크게 확충되고 가공·유통분야의 생산성 향상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시행에 있어서는 수출촉진, 농가경영개선 지원 등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투융자 방법을 개선하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 생산·유통·품질·안전성 등 총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99년도 농정 여건은 '97년말 발생한 IMF외환위기로 인한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채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경영을 조속히 안정시키며, 저효율 고비용 구조로 지적되어온 협동조합을 개혁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21세기 농업발전의 기반마련을 위한 새 틀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한편, 엘니뇨 등 기상이변과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의 전환, 그리고 세계적인 물부족 현상의 심화 등 세계적인 식량수급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시장개방과

보조금감축의 요구가 거세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WTO차기협상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농정여건의 변화와 그간의 농정추진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올해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주요 방향과 분야별 시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에 대응하여 가족전업농·법인경영체 등 농림어업 전문경영체를 적극 육성하고, 이들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경영·기술 컨설팅 등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은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고 기계화사업은 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고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며, 에너지절약형 시설설치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농림수산기술개발을 수요자지향의 현장애로과제 중심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강화와 더불어 농산물 사이버마켓 개설 운영 등 농업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농림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제도개선, 농산물 물류비 절감, 직거래 활성화, 가공산업의 육성 등 농산물 유통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WTO체제 출범으로 개방된 세계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국내수출산업 기반구축, 해외 농산물 시장개척 등 수출진흥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장접근

물량관리, 원산지표시제 실시, 동식물 검역기능강화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리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등 친환경농업육성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곱째, 농어촌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료 등 복지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롭고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개발하여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품목별로는 쌀 산업은 불안한 세계식량사정과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쌀 자급기반의 확충과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4년까지 벼 재배면적 92만ha 확보, 농지보전시책 강화, 쌀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 실시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도입을 목표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예산업은 주산단지의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한 규모화된 전업적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축산업은 한우대책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한우생산기반유지를 도모하고 돼지콜레라 근절시책등 위생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하며 축산분뇨자원화를 통해 환경친화적 생산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임업은 제 1·2차 치산녹화 및 산지자원화 사업 추진으로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잘 가꾸어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수산업은 EEZ체제에 맞는 수산자원의 관리와 보다 넓어진 해역에서의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한·일 어업협정 등으로 어려워진 어업인을 지원하는 한편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현재의 「잡는 어업」에서 「자원관리형 어업」,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과 안정적인 어업생산 증대를 도모하고 본격적인 「유통구조개혁」과 종합적인 「어촌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어촌지역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 제1단계 구조조정사업의 추진성과 및 평가

### 가. 추진성과

정부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단계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42조원 구조개선사업은 1992년부터, 농특세사업은 1994년부터 각각 추진하였다. 제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된 1998년까지의 짧은 기간에 농업·농촌에 대한 투융자를 집중('92~'98간 총 52조 3천억원, 이중 국고는 39조 5천억원을 투자)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영농의 규모화, 전문화, 시설현대화가 촉진되는 등 투융자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1) 농림업의 성장에 기여

농림어업부문 부가가치 성장률은 '80년대에는 0.4% 수준으로 정체 상태에 있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힘입어 성장세('90년대 초 2.5%, '90년대 중반 4.8% 성장)로 전환되었다. 즉 농림어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93년 이전에는 전체 산업 성장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90대 중반이후에는 전체산업 성장률 5%에 근접하게 되었다. 다만, '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6.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농업부문의 생산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97년 노동생산성은 '91년에 비해 1.8배 증가하였으나, '98년에는 귀농 인구가 증가하여 1인당 노동생산성이 타산업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 토지생산성도 꾸준히 높아져 구조개선 사업전인 91년보다 97년에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원시자본 축적이 부족했던 농업분야에 자본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자효율은 이와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아 자본생산성은 '91년 0.7%에서 97년 0.51%, 98년에는 0.32%로 계속 저하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지 면적의 꾸준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호수의 감소와 영농규모화 촉진에 힘입어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여 '91년 1.23헥타에서 '98년 1.35헥타로 증가하였다.

농업기계화,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인의 합리적인 경영으로 농업 생산비와 경영비의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쌀생산비의 경우 구조개선 사업전의 7년 동안에는 58.7%나 증가하였으나, 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된 '98년 말에는 '92년 대비 28.5%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농업시설의 현대화·첨단화에 힘입어 돼지고기, 김치, 오이, 화훼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다. '98년에는 '92년의 11억불보다 50% 증가한 16억불을 달성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물가 안정과 주곡자급 등 국민경제에 기여

개방화와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농업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조개선사업전에는 농산물 가격이 연평균 8.5% 상승하여 산업전체 물가상승률 6.9%보다 높았으나, 구조개선 기간중('92~'98)에는 5.5%로 둔화되었다. 이는 전체 물가상승률 5.4%와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와 같이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안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육류와 과일은 각각 0.4%와 3.4% 상승에 그쳐 전체 물가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육류·채소·과실은 시설현대화, 저장시설확충 등에 힘입어 연중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물가상승 둔화에 기여함은 물론, 신선채소·과일의 연중소비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증가한 것도 적잖은 성과였다.

한편, 곡물 자급도는 91년 37.6%에서 98년 31.7%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종자 개량·보급 등에 힘입어 '92~'98 기간동안 주곡인 쌀은 자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3) 농가소득 증대

농가소득은 '92~'97 기간 중 연평균 10%로 늘어나 구조개선사업 추진 전인 '91년 대비 1.8배 증가했으나 동일 기간의 도시가계소득 증가율(2배)보다 낮아 여전히 도·농간 소득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외소득 비중은 '92년 30.5%에서 97년에는 36.9%로 높아졌으나, 일본·대만 등에 비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4) 농업구조조정의 촉진

'92년 이후 농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융자로 생산 기반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다. 경지정리의 경우 목표대비 경지정리율이 '91년 65%에서 '98년 85%로, 배수개선율은 '91년 28%에서 '98년 41%로 증가하였다. 벼농사는 농기계의 보급확대와 생산 기반 정비로 대부분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구조개선사업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밭기반 정비도 대상면적 11만ha의 27% 수준인 3만ha를 정비하는 성과를 올렸다.

품목별 생산량, 생산액과 경지이용면적은 쌀 중심에서 채소류·과실류 등 경제작물과 축산이 늘어나는 등 영농형태가 고도화되고 있다. 육류·채소류·과실류의 생산량은 '90년 67%에서 '98년에는 73%로 증가하였다. 육류·채소류·과실류의 생산액 비중은 48%에서 57%로 증가하였다. 경지이용면적도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과실·채소등 원예작물 재배 면적은 14만ha에서 26만ha로 크게 증가하였다.

쌀, 축산, 원예산업 등 농업 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가 진전되면서 경지규모 3ha이상 농가가 '92년 52천호에서 '98년 66천호로 증가하였다.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도 92년 1.2천호에서 '98년 5천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영도매시장 건설 등으로 소비자 유통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상장경매확대로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농산물의 공정거래 질서가 상당수준 확립되었다. 공영도매시장은 '91년 6개소에서 '98년 18개소로 증가하였고, 농산물 공판장도 4개소에서 24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유통경로인 물류센타도 등장하여 3개소가 개장되었다. 상장경매율도 '92년 52%에서 '98년 90%로 증가하게 되었다.

현대적 설비의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설치되는 등 축산물 도축·가공·유통산업의 선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도축·가공·판매 기능이 연계되면서 유통단계가 축소되었다.

지역별, 품종별로 규격화, 포장화와 함께 '98년에는 2,200건의 브랜드가 탄생하는 등 지역별, 품목별로 다양한 브랜드화가 촉진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되었다. 과일류·채소류의 포장화율이 증가하고 농산물표준출하 품목도 '92년 35개 품목에서 '98년 124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김치가공공장도 크게 늘어나 '98년에는 10여개국에 김치 44백만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산지유통시설과 농산물 가공시설이 확충되고, 농산물의 가공·저장·판매의 계열화로 고부가가치 농업이 확산되었다. RPC 중심의 쌀민간유통체제 정착으로 쌀생산비를 절감하고,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 (6) 농업인 복지 및 농어촌 생활여건개선

농어촌출신 대학생 2만명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고, 매년 농어촌학생 16천명에게 대학 특별전형 입학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학비지원 등으로 농가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수준 경감되었다. 아울러 불리한 농어촌 교육여건을 보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도시집중화 현상이 심한 민간병원에 대한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군 단위 보건소와 면 단위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강화하였으며, 농업인의 의료혜택도 확대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업인 연금제를 '95.7월부터 실시하여 '98년까지 470만 농업인 중 89만명이 연금에 가입하였다. 연간 400 - 500km를 확포장하던 농어촌 도로를 1800~2000km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도 31%에서 39%로 증가시키는 한편, 연간 3만동의

주택을 개량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길, 물, 집 등 필수적인 기초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 나. 평 가

'92년 이후 본격적인 농어촌 투융자로 생산기반 확충·기계화·규모화·전업화 등 구조개선 성과도 상당수준 거두었으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실·비효율 사례와 개선해야 할 사항도 발생하였다.

일부 자율사업의 경우 농가에 대한 과도한 보조 지원으로 책임경영 의식이 퇴색하고 정부의존의식이 심화되었으며,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사업을 신청하는 등 농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도 발생하였다. 또한, 설계기준에 미달한 채 시공하거나, 사업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투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부실을 초래하는 등 사업 추진과 자금집행이 부적절한 사례도 나타났다.

아울러, 농어촌투융자 규모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촌 현장에 투입되는 자금규모는 총규모에 상응하는 만큼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는 42조 구조개선사업의 성격이 중장기적, 비구조개선적 성격의 사업까지 포함되어 외형규모가 크게 된 반면, 단기성자금과 채무상환 예산,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 출연금 등 농어촌에 투자되지 않는 간접사업비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농업인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득지원 사업비는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내용면에서 보면, 농업경영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유통체계 개선, 수출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미흡하여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선도할 부문에 대한 투융자지원액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지금까지의 자금지원방식은 품목별, 단위사업별로 세분화되고 분산 지원되어 발전단계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99년부터는 농업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종합자금제를 축산, 원예특작 분야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배분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중간평가와 농림사업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후의 사후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종합자금제의 본격적 실시와 함께 농업금융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제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한편, 농업·농촌 투융자 규모는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고,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방식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을 배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투융자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시장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정책자금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현장 점검과 평가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제2단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 가. 제2단계 투융자계획의 필요성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1992년부터 시작한 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1998년에 종료됨에 따라 농업경쟁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21세기 경쟁력 있는 세계 속의 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마련을 위하여 새로운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 차기협상과 정보·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 21세기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및 관리체계를 개혁하여 투융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나. 투융자 규모 및 지원분야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총투융자규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5조 526억원이며, 이중 중앙정부 투융자액은 37조 8,384억원으로 84% 수준이고, 지방정부 부담액은 4조 7,169억원으로 10% 수준이며, 사업자 부담액은 2조 4,973억원으로 6% 수준이다.

#### < 농업·농촌 투융자 규모 >

			(단위:억원,%)
구 분	1999	'99~2004	비 고
중앙정부(A)	54,902	378,384	
지방정부	8,214	47,169	
사업자부담	5,136	24,973	
계 (B)	68,252	450,526	
A / B	80.4	84.0	

※ 사업자부담은 주로 유통시설, 도매시장,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등 대형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부담액임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중점지원분야는 '98년도에 수립한 「농업·농촌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중점시책을 토대로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발전 등 6개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 주요분야별 투융자 규모 >

투 융 자 분 야	(단위:억원,%)	
	투융자	구성비
○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	149,663	33
○ 건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77,811	17
○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	18,063	4
○ 농림산물유통개혁 및 수출농림업 육성	87,142	20
○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인 복지지원	81,304	18
○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등 농업인 경영안정	36,543	8
계	450,526	100

다. 제2단계 투융자계획의 특징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은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1차 투자를 마무리하고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농업·농촌부문이 재도약하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6년('99~2004)에 걸쳐 총 45조원 규모를 지원하게 된다.

중점지원분야에 있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투융자 중점을 전환하여 유통혁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품질·안정성제고, 수출확대,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 등에는 확대하고, 공급과잉 또는 부실우려 사업, 에너지 과소비형 시설, 비환경친화적사업,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 등은 축소 또는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여건과 주요 투융자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사업별·연차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환류체계를 확립하여 신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단계 투융자계획과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비교 >**

	제1단계('92~'98)	농업·농촌투융자('99~2004)
▪ 중점지원분야	○ 경지정리, 농기계, 유리온실 등 - 주로 하드웨어중심의 물적 기반 확충	○ 유통개혁, 수출촉진, 농가 경영개선, 친환경농업육성 등 - 주로 소프트웨어중심의 지원 * 재해대비 기반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상승적인 기상이변에 대비
▪ 개별경영체지원	○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지원 중점	○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융자지원으로 전환
▪ 자금지원방식	○ 공급자 위주의 사업자 관리	○ 수요자 위주의 「농업경영 종합자금제」 도입
▪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 사업의 운영 및 사후관리 미흡	○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집행 및 관리

**라. 투융자 효율성 제고 방안**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생산기반정비, 시설 및 장비지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SOC성격의 하드웨어 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 확충, 품목별 경쟁력 확보에는 크게 기여하였지만,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이나 유통개선, 환경,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일부 비효율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서는 이러한 부실과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방식과 집행체계,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집행관리도 철저를 기하는 등 과감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농업인 등 개별경영체에 대한 보조는 축소하고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은 당해분야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과잉수요를 유발시켜 자금관리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인의 사업계획과 사업능력에 따른 자금지원체계를 만들고 벤치마킹기법에 의한 경영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농어촌 사업의 자금지원은 공급자 위주로, 또 시장·군수 등 행정기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방식에서 앞으로는 실제 사업을 하는 수요자 위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로 사업지원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며 '99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림부 소속 3~5급 공무원 182명을 「현장농정점검지원단」으로 임명하여 각각 일선 시·군의 농림사업집행과 관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추진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해 나간다.

**<분야별 재원별 농업·농촌투융자계획>**

(단위:억원)

	총투융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b>합 계</b>	<b>450,526</b>	<b>378,384</b>	<b>47,169</b>	<b>24,973</b>
<b>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b>	<b>149,663</b>	<b>130,593</b>	<b>15,290</b>	<b>3,780</b>
○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	50,884	50,854	300	-
○ 농지의 정비 및 관리	62,103	53,336	8,767	-
○ 친환경 농림업의 육성	14,312	11,795	1,859	658
○ 산림자원의 확충	22,364	14,878	4364	3,122
<b>2. 건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b>	<b>77,811</b>	<b>71,927</b>	<b>1,986</b>	<b>3,898</b>
○ 교육 및 훈련	9,080	8,936	144	-
○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지원	45,628	45,468	160	-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103	17,523	1,682	3,898
<b>3.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b>	<b>18,063</b>	<b>15,842</b>	<b>1,579</b>	<b>642</b>
○ 첨단 농림업기술 개발	14,449	12,556	1,578	315
○ 농림업의 정보화 지원	1,057	947	-	110
○ 농림업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2,557	2,339	1	217
<b>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b>	<b>87,142</b>	<b>67,959</b>	<b>5,118</b>	<b>14,065</b>
○ 산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48,826	37,733	351	10,742
○ 소비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11,211	7,283	3,071	857
○ 물류체계, 정보·교육 지원	5,311	4,749	161	401
○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원	1,169	838	-	331
○ 소비자보호의 강화	2,365	1,981	360	24
○ 축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6,628	6,346	33	249
○ 임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4,169	2,850	282	1,037
○ 농림수산물수출기반 조성 지원	7,463	6,179	860	424
<b>5.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의 증진</b>	<b>81,304</b>	<b>55,520</b>	<b>23,196</b>	<b>2,588</b>
○ 농촌의 다양한 산업 유치	19,965	13,290	5,009	1,666
○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41,404	26,741	14,663	-
○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19,935	15,489	3,524	922
<b>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b>	<b>36,543</b>	<b>36,543</b>	<b>-</b>	<b>-</b>
○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지원	26,488	26,488	-	-
○ 농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10,055	10,055	-	-

#### 4. 제2차 수산업 · 어촌 투융자계획

제2차 수산부문 투융자 계획은 제1단계 투융자 사업의 기반위에서 EEZ체제 도입과 수입개방 등 어업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잡는 어업』 중심에서 『자원관리형 어업』,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생산증대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어업구조 조정사업에 중점 지원하게 되며, 또한, 본격적인 『유통구조개혁』과 종합적인 『어촌개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어촌지역의 진흥 및 어촌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과 예산을 긴밀히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99~2004년간의 수산업 어촌투융자는 총 6조 7,597억원이며, 이중 중앙정부의 투융자액은 5조 7,716억원으로 85% 수준이며, 지방정부는 5,377억원(8%), 자부담액 4,504억원(7%)의 규모이다.

##### <수산업 · 어촌 투융자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1999	'99~2004	비 고
중앙정부(A)	9,849	57,716	
지방정부	529	5,377	
사업자 부담	651	4,504	
계(B)	11,029	67,597	
A/B	89.3	85.4	

##### < 주요분야별 투융자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투융자	구성비
1. 새로운 해양질서에 맞게 어업구조 재편	10,064	14.9
2. 환경친화적 기르는 어업 육성	12,380	18.3
3. 수산물 유통개혁 추진	13,608	20.1
4. 풍요로운 어촌 건설	26,483	39.2
5. 해양주권수호 및 방제능력 보강	5,062	7.5
계	67,597	100

## 5. '99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 가. '99년도 농림예산 편성방향

1999년 농림예산은 농업·농촌제도약을 위한 「제2단계 농업·농촌투융자 계획」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농림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첫째, 농산물 유통비용을 최대한 줄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의 적극 지원한다. 현재 주요도시에 건설중인 농산물도매시장의 완공시기 단축, 농산물공판장 신규증설, 소비지유통주체간의 경쟁촉진과 유통경로를 다양화 하기 위한 물류센타 설치, 산지에서부터 농산물을 선별·규격화하고 공동출하와 물류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포장센타 지원, 규격출하·물류표준화 지원, 상설직거래장터와 농민시장건설운영, 기존유통시설의 보완확대 등 유통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둘째, IMF위기로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한 반면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여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농가부채상환 부담경감을 위해 중장기 정책자금중 생산성자금의 상환연기 및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의 저리자금 대체를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특별히 지원토록 하였다.

셋째, WTO/IMF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산물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를 증액하고,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및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우리 농산물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9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WTO 차기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소요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다.

넷째, 기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는 완공위주로 지원하되, 자연재해의 상시화에 대비하여 재해대비 기반조성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농업기계화 분야는 신규공급보다는 수리봉사·이용을 제고사업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원예특작생산유통, 농촌생활환경개선 분야에서도 신규시설 투자를 줄이고, 기존 농업경영체의 운영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농림사업의 투융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생산기반, 유통시설등 농업인프라 분야 지원사업은 보조를 유지하되 개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업인들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여 부실 사업자 선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여 농업인의 사업선택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경영지도 등을 병행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종합자금제 시범사업비 및 경영컨설팅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다.

## 나. '99년도 농림예산 규모

'99년도 농림부분 예산은 7조7,650억원으로 '98년도보다 0.5%감소되었다.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 '99년 농림예산기능별·재원별 규모(2청예산 포함) >

(단위 : 억원)

구 분		'98예산 (A)	'99예산 (B)	증 감 (B-A)	%
기 능 별	○ 투융자사업	53,275	41,997	△11,278	△21.2
	○ 부담경감 등	7,767	11,039	3,272	42.1
	○ 채무상환	7,931	10,490	2,559	32.3
	○ 양곡지원	6,472	9,812	3,340	51.6
	- 수매지원	1,159	1,828	669	57.7
	- 양곡증권기금	5,313	7,984	2,671	50.3
	○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	-	1,955	1,955	-
	○ 기본적경비	2,629	2,357	△272	△10.3
계		78,074	77,650	△424	△0.5
재 원 별	○ 일반회계	20,965	25,099	4,134	19.7
	○ 농특회계	52,784	48,841	△3,943	△7.5
	○ 재특회계	4,325	3,710	△615	△14.2
양 곡 관 리 특 별 회 계		12,837	13,226	389	3.0
농 특 세 관 리 특 별 회 계		269	495	226	84.0
국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1,704	1,289	△415	△24.4

※ '99.2회 추경예산 기준임



< '99년 농림예산 사업별 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98예산 (A)	'99예산 (B)	증△감 (B-A)	%
합 계	78,074	77,650	△424	△0.5
1. 투융자사업	53,275	41,997	△11,278	△21.2
○ 생산기반조성	22,894	17,806	△5,088	△22.2
○ 농업기계화	3,638	2,553	△1,085	△29.8
○ 생산 및 유통개선	10,953	11,509	556	5.1
○ 기술개발 및 정보화	2,440	2,388	△52	△2.1
○ 인력육성	4,483	2,782	△1,701	△37.9
○ 농촌소득원개발 및 농가자금지원	4,502	803	△3,699	△82.2
○ 생활환경개선	1,607	1,267	△340	△21.2
○ 임업구조개선	2,640	2,751	111	4.2
○ 기타(경상)사업	118	138	20	16.9
2.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7,767	11,039	3,272	42.1
○ 비료계정적자보전	1,380	1,450	70	5.1
3. 채무상환등	7,931	10,490	2,559	32.3
4. 양곡수매	6,472	9,812	3,340	51.6
○ 수매지원	1,159	1,828	669	57.7
○ 양곡증권정리기금지원	5,313	7,984	2,671	50.3
5.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	-	1,955	1,955	-
6. 기본적 경비	2,629	2,357	△272	△10.3

※ '99.2회 추경예산 기준임

## 다. '99년도 수산분야 예산편성방향 및 규모

'99년도 수산분야 예산편성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유통체제의 개혁과 신해양 질서에 적합한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중점을 두고

첫째,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감척사업 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예산을 확대하고

둘째, 어로시설, 인공어초등 생산기반시설 투자에서 유통구조개선위주로 예산을 전환하는 한편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의 지속적 지원으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셋째, 환경친화적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어장정화 및 보전으로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 <'99년 수산분야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98예산 (A)	'99예산 (B)	증감 (B-A)	%
기 능 별	○ 수산분야 지원	8,298	9,679	1,381	
	- 어업경영안정지원	2,111	2,156	45	
	- 어업기반시설	1,906	1,769	△137	
	- 어업구조조정	297	2,163	1,866	
	- 유통구조개혁 등	3,984	3,591	△393	
계		8,298	9,679	1,381	
재 원 별	일 반 회 계	2,407	2,554	147	
	농 특 회 계	3,806	5,388	1,582	
	재 특 회 계	2,085	1,737	△348	

## II.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제도개혁

### 1. 협동조합의 개혁

#### 가. 농·축·삼협 개혁

##### (1)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

협동조합은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으나 비대한 중앙회 조직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일선조합의 경영부실로 인한 경제사업 위축 등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참여가 보장된 협동조합”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IMF 경제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개혁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공감대가 농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속에 폭 넓게 확산되었고 차기 농산물협상과 2001년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틀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우리 협동조합이 처해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기 위해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하였다.

##### (2) 협동조합 개혁의 주요 내용

###### (가) 일선조합관련

일선조합을 신용사업 중심에서 유통·경제사업 중심의 조합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중앙회 사업을 일선조합으로 이관 또는 공동출자·공동경영토록 하였으며, 중앙회 통합으로 절감되는 재원과 재정자금으로 조합별로 유통자금을 조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간선제외에 이사회 호선방식을 추가하여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인 조합장의 입후보자격을 2년 이상의 조합원 신분보유기간에서 5년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합장 선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또한, 조합장을 상임, 비상임으로 구분하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집행토록 의무화하고 상임인 조합장이나 이사에게는 고의·중과실책임뿐만 아니라 업무소홀에 따른 경과실 책임도 부여하여 경영책임을 강화하였다.

조합에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은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외에 추가로 이사회이사록을 비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제안권, 서류열람 및 교부청구권 등을 새로이 인정하여 조합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조합별로 감사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동일가구당 2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가입제한을 폐지하여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준조합원 자격만 부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였다.

품목별 전문조합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구역과 조합원 자격과 사업 관할 구역을 자율적으로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일한 품목이나 업종을 취급하는 품목조합이 모여 법인격을 갖는 「연합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 (나) 중앙회

현재의 농·축·삼협중앙회를 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하여 기존 농·축·삼협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하고, 지역농협·지역축협·인삼조합 등 기존 중앙회의 회원조합도 새로운 중앙회의 당연회원으로 간주하여 중앙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 하도록 하였다.

중앙회장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도·감사업무와 대정부건의 등 농정활동을 전담하게 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토록 하고, 농업경제·축산경제 및 신용대표이사간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조정권을 행사하여 중앙회 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이사를 두어 대표이사가 소관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대표이사 소관의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대표자 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였다.

축산부문에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단수로 추천하면 중앙회장은 총회의 동의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어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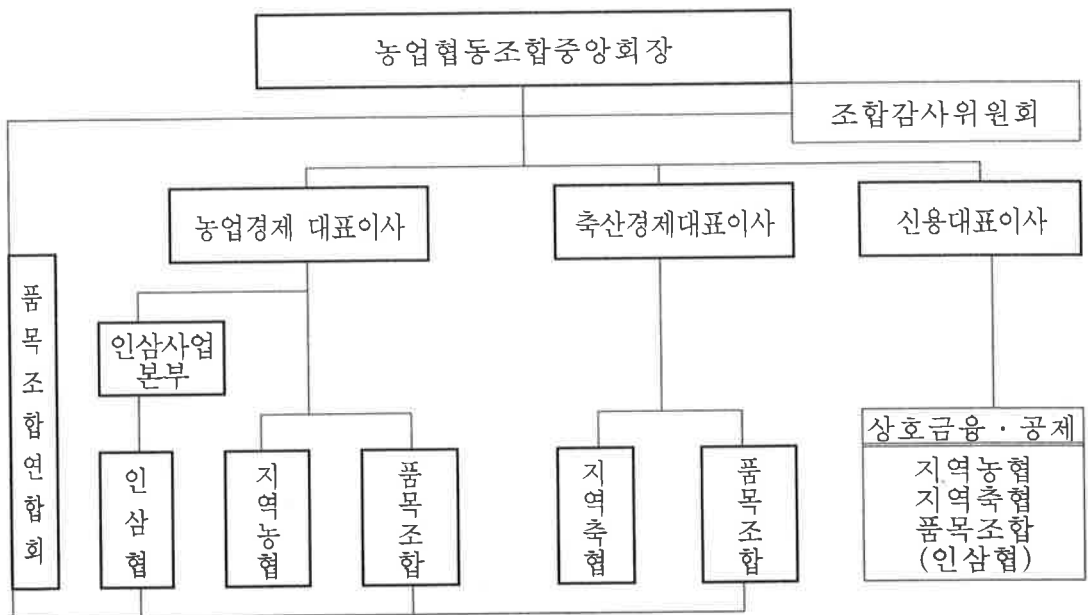
중앙회장 소속하에 회원조합을 지도·감독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조합을 감사하게 되며,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업무정지, 관련 임·직원 제재도 회원조합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법에서는 조합의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중앙회의 자기 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도 우선출자 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적자금의 투입기회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은 농림부장관이 수행하되 신용사업의 건전성 부문에 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이 대폭 인정되었다.

신·경 분리 문제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여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2년 이내에 시행토록 하였다.

###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모습>



### (3) 협동조합개혁의 기대효과

첫째, 중앙회의 통합에 따른 절감액과 재정자금으로 유통자금을 조성하여 일선조합에 집중 지원하고 중앙회 사업을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공동출자·공동경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전국 3,000 여개의 농·축협 소매유통시설을 망라한 통합유통망을 구축하게 되면,

일선조합은 유통·경제사업의 중심체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농약·비료·사료 등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고, 상호금융금리도 한자리수로 인하할 수 있어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둘째, 중앙회장은 사업경영이 아닌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도 및 조합원 권익보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추곡수매가 건의, 농가부채 해결 등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게 되었다.

셋째, 통합중앙회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선조합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일선조합의 부실을 조기에 치유하게 됨으로써 조합원에게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된다.

넷째, 새로운 협동조합 중심으로 WTO차기협상과 2001년 쇠고기 수입 개방 등 새천년 무한경쟁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국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4) 향후추진 계획

2000년 7월 1일 새로운 중앙회의 출범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제정, 시행령 등을 마련하며 기존의 중앙회의 해산사무와 새로운 중앙회 설립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하위법령과 정관작성 등 개혁작업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협동조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나. 임업협동조합 개혁

### (1) 개혁의 배경

60년대에 산림조합이 탄생한 이래 산림분야에 있어 역사성과 전문성을 지닌 유일한 공법인으로 산림보호와 국토녹화사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유림경영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이 협동조합으로 변경('93.6)된 이후 외형은 협동조합으로 바뀌었으나 경제·신용사업은 미약하고 정부사업대행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며 조합원 48만명중 산주는 12만명으로 25%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이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임협의 현 기능과 장차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국가사업(산림사업대행과 산주에 대한 기술지도)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산림조합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임협 개혁의 기본방향

임업협동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전환하여 210만 산주와 임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체로 재편하고 사유림의 경영관리 주체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과감한 구조조정, 지역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기능 강화, 연합회 사업기능을 지역조합에 대폭 이양, 대리경영과 협업경영사업 체제 확립, 산주의 소득증대와 연계한 경제사업부문 강화, 지역조합의 상호금융과 정책자금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임협개혁의 주요추진내용으로 임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 및 체제정비, 사유림 경영형태와 산주의 의사가 반영된 새로운 임업기술지도 체계 확립, 생산자조합으로서 역할 강화, 그리고 연합회와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체제 강화이다.



### (3) 임협개혁추진의 기대효과

산주는 시간·기술·정보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소유산림을 산림사업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이 맡음으로써 산주의 편익이 증진되고 공제사업시행으로 임목재산이 보호될 수 있으며, 이를 담보물로 활용 가능하게 된다.

산림조합은 조합회원의 대상을 모든 산주와 임업인으로 확대할 수 있고, 공개경쟁 확대의 대비 차원에서 대리경영제도를 근거로 하여 산림사업을 전담 대행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 등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연합회의 시공기능을 조합에 이관하여 '98년도 기준으로 6,738백만원 수익이전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현장임정의 실행조직이 확보되고, 산주와 지역 산림조합간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될 것이다.

### 다.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방향

수산업협동조합 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여 건전한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어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98. 11월 수협개혁 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바탕으로 지난 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외부경영진단을 실시하였고

동 진단결과를 토대로 본 개혁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구조조정은 '99말 까지 추진하고 인원감축은 2000년까지, 법령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99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주요개혁내용은 중앙회의 완전 「독립사업부제」 실시, 이사회의 기능 강화, 중앙회의 조직 개편 및 인원감축과 아울러 부실조합 및 법인어촌계의 정비, 제3자 우선출자제도 도입, 도지회의 폐지 및 회원조합의 운영 개선 등이다

##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 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수차례에 걸친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 시설이 확충되고, 거래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농산물의 전반적인 유통체계가 아직도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추진한 유통개선대책이 관련제도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보다는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기본틀 속에서 시설확충에 치중한 결과, 급격한 유통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도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의 틀과 제도를 제로베이스(Zero Base)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유통개혁을 함으로써 농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을 수립하여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1) 새로운 수급안정제도 정착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

생산계획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수급안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관측센터」를 설치('99.1)하여 생산, 출하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면적·출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소류 출하조절기획단」을 설치, 농·소·상·정이 공동참여하여 면적조정·출하조절·출하규격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유통협약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협약 품목도 마늘·양파에서 무·배추까지 확대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이를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유통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경영비 수준의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시제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사후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여 가격폭락시 정부 수매, 산지폐기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수매·비축사업 자금으로 매년 1조1천억원 수준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 (2) 산지유통체계 혁신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체계 구축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농업인의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렵고 농협도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산지에서의 유통혁신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일선협동조합이 생산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산지유통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유통활성화자금을 신설하여 우수조합에 대하여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00년 예산으로 2,0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채소생산량의 30%수준을 계약재배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등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해 나가고, 조성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재정에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산지유통센터(포장센터)를 2002년까지 22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40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하여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 (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가격 인하 촉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여 생산자·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목표아래 정부는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직거래장터를 '99년중 50개소를 설치하고, 중소 도시에는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시장을 2002년까지 150개소 개장할 것이며, 직거래 장터 시설비와 운영비도 신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할인업체 등 가격 파괴점 확산을 위해 민간유통업체에게도 산지 유통센터·물류센터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직거래알선 및 직거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해 나가며, 민간업체와 생산자단체간 지원조건도 완화하여 민간자본 및 유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여 산지 생산자단체와 연계, 농산물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98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직거래를 '98년 4조4,000억원에서 '99년에는 5조4,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직거래 비중을 12%에서 15%로 늘려나가도록 했다.

### (4) 농산물 물류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경매없는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98년 4개소를 개장하였으며, '99년 중 2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물류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 기계화 하역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진유통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 건설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보조 70%)와 민간의 지원 조건(유자 60% → 80%)을 개선하고,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센터로의 전환('99년 2개소)을 유도하고, 건설중인 12개소 이외에 「공공소유·민간 운영」 방식 (보조 100%)등 다양한 형태의 물류센터를 추가 건설('99년중 4개소)하고 있다.

개장초기 물류센터 운영정착을 위해서 산지 생산자조직을 물류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 지원('99년 159억원)을 확대 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 (5)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도매시장의 운영방식 개선

물류센터가 개장되고 직거래가 활성화되더라도 농산물의 대부분은 도매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정상화는 유통개선대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2001년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차질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비부담을 완화하여 중앙정부 보조율을 30~5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고, '99년부터 개장중인 기존공영도매시장의 시설개보수도 본격 추진(16개소)하고 있다.

시설확충과 아울러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시설여건·거래액 등을 감안하여 지방, 신설도매시장 중심으로 도매상제의 도입이 가능토록 개방하였으나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당분간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를 의무화하여 기준가격 형성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을 경유하더라도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출하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역제도를 개선하여 기계화를 촉진하겠으며, 중도매인의 경쟁경매촉진으로 중간상의 마진도 줄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불법행위 단속강화와 시범실시중인 가락동·대전 공영도매시장의 전산 경매를 확대하고, 출하주 등록제와 출하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가격동락을 최소화하여 출하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다.

####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30%수준 절감

유통효율화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저가로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의 농산물 물류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결과 '97년 농산물 물류비는 6조 2천억원으로서 유통비용의 32%로서 국가물류비의 GDP대비 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업체류와 같이 부피가 크고, 부패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인력에 의해 상·하차되는 농산물의 경우 물류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농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고, 판로도 확보할 수 있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농산물이 포장화, 파렛트적재, 하역기계화 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 부담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등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24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 이상 되도록 재정비를 완료하고, 규격포장재에 대해서만 포장재가 지원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역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99년부터 지원조건도 대폭 완화(보조50%, 용자30%)하여 지원하고 있다.

##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정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제고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기존의 품질인증,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 도입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제(GMO), 지리적표시제 등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조사 대상 농산물을 '98년 80개 품목 10,607건에서 '99년에는 90개 품목, 27,000건으로 확대하고, 안전성조사결과 고지사항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마련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또한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인증을 '98년에는 90개 품목에서 '99년에는 10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질인증 농가협의회를 결성하여 자율적인 품질인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8) 농산물 유통개혁 지원체계 강화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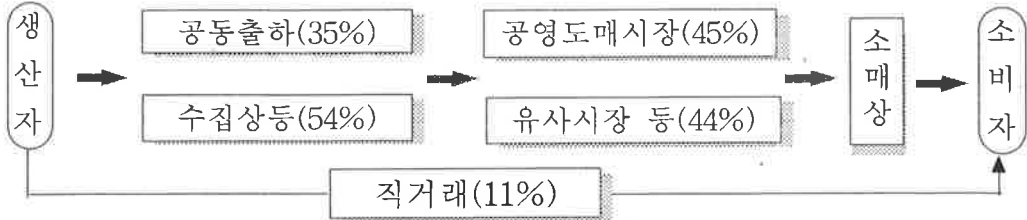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투자자중 유통부문예산 비중을 '98년 3,096억원(6%)에서 '99년에는 5,477억원(15%), 2000년에는 20%수준이 증가되도록 했다. 대폭 확대되는 유통예산은 시설확충보다는 협동조합 유통사업지원,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집중 투자키로 하는 한편, 농안기금은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수출·가공업체 운영에 집중지원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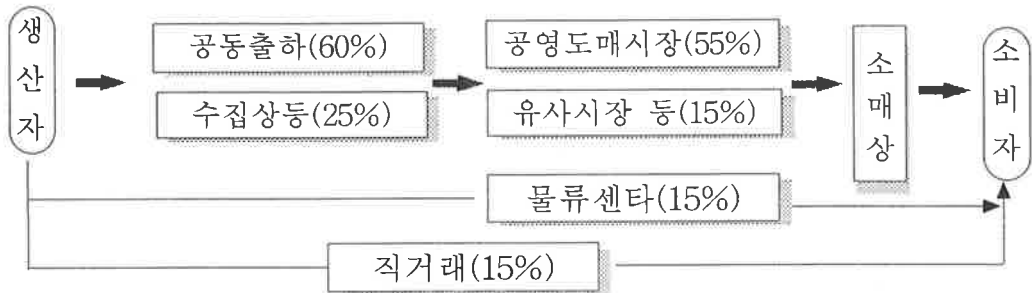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농안법」 개정안을 '9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여 새로운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2002년 농산물 유통모습>

### < 현 행 >



### < 대책후 >



- ◇ 유통협약·유통명령·가격예시·생산출하조절 기획단 운영 등으로 가격 등락이 큰 주요 채소류에 대해 「제값 받기」 실현
- ◇ 공영도매시장 조기확충과 시설개보수로 유사시장을 흡수하여 교통·환경·위생문제 해소와 물류효율 증대(2002년 55% 담당)
- ◇ 도매시장 이외에도 포장센터·물류센터·가맹점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2002년 15% 담당)하여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 ◇ 안전성조사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식생활 안전보장 및 생산자·소비자단체의 직거래 제도화(15%)로 소비자가격 인하
- ◇ 포장화·규격화, 파렛트출하, 하역기계화, 유통정보화 등으로 6조 2천억원 수준의 물류비용을 30% 수준 절감

농산물 유통비용 5조4,000억원 절감



## 나. 임산물 유통 구조개선

임산물 생산, 유통, 소비량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권역별 임산물 유통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4년까지 총 162개소의 임산물 유통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99년도에는 임산물생산 주요 거점지역에 임산물직매장 14개소, 목재종합집하장 1개소 등 산지유통시설 15개 시설을 설치하여 산지 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시설을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산지에서 소량·분산 생산되는 임산물을 대단위 소비지 권역별로 「수집·저장·선별·가공·포장」 등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생산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타를 영동권역(강원동부 또는 경북북부)에 3개년 사업('99~2001)으로 시설할 계획이다.

또한 밤, 대추, 표고등 주요 임산물 생산자전문조직 육성으로 시장대응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경쟁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특산물로 개발토록 56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품목별 기초 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는 출하조절자금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산자조직단위로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신속하고 실제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통정보제공을 위하여 '97년도에 임산물유통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98년6월부터 농림수산정보센타 정보망을 통하여 임산물생산·가격·직거래 정보등 임산물 유통정보를 생산자·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99년에는 임산물의 전자상거래(Cyber Market) 및 직매장의 전산화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지원을 확대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등으로 임산물의 브랜드화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 다.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과거 수차례에 걸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저효율의 유통구조가 지속되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불만 해소를 위해 수산물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대책 및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수산물 유통구조개혁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생산지 유통혁신과 산지수협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국 210개 위판장을 농안법상 유통시설로 전환하고 15~20개의 대형위판장 중심으로 규모화하며, 산지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소비지 소매점에 직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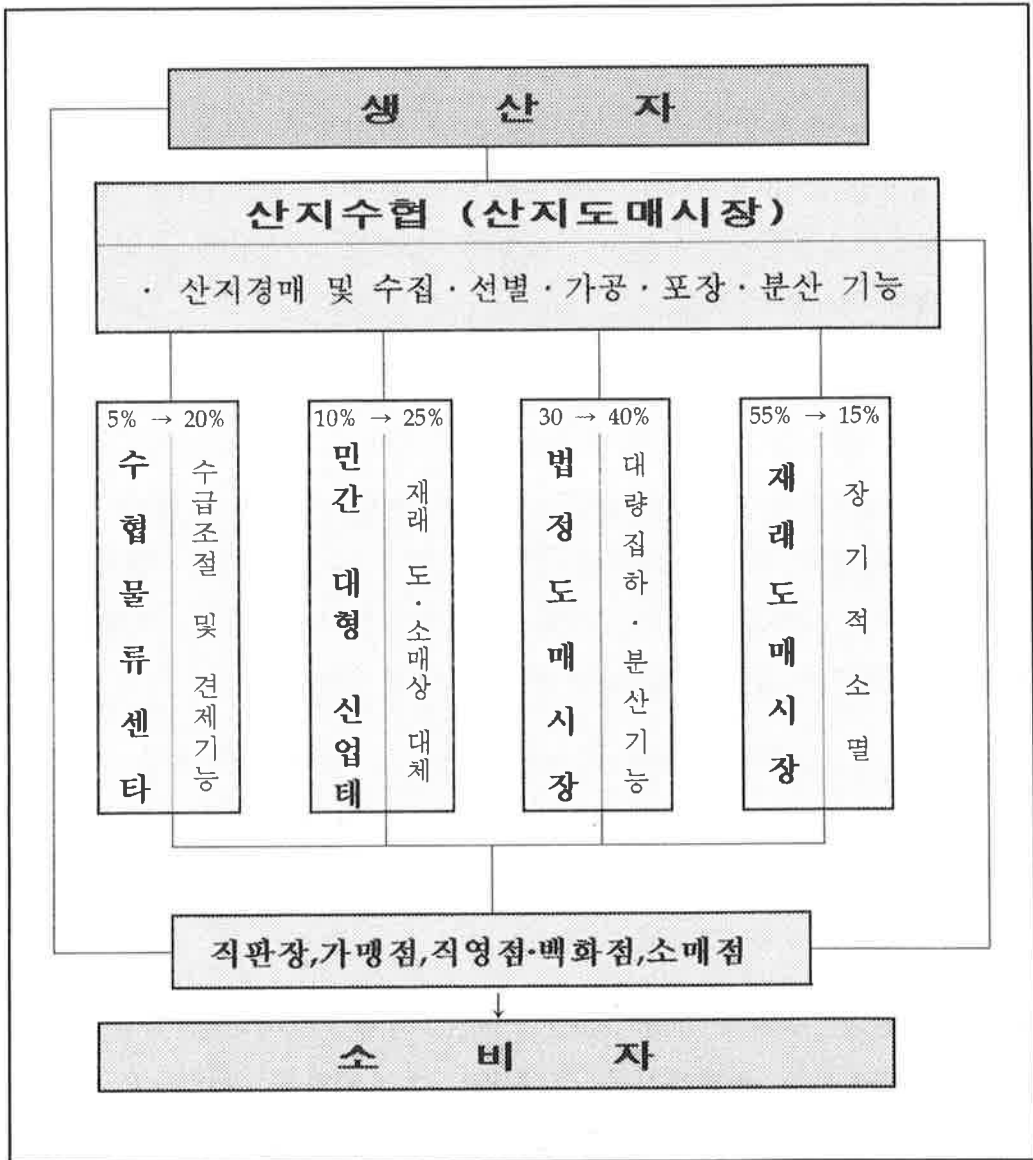
둘째, 소비지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전국 5대권 물류시설을 건설하여 소비지 대규모 집하·분산체제를 구축하고, 도매상제도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다양화하여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경로간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무허가 우수 중도매인을 양성화하는 등 도매시장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도매시장법인에게 수출입 등 부대업무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셋째, 생산자 단체에 직거래 시설을 확충하여 직거래 비율을 확대(5%→20%)하고 유통마진 감축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수협의 유통사업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존 도소매 체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지향의 직거래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넷째, 수산물 유통기반을 선진화하기 위해 거래단위(등급·규격) 표준화 및 포장화로 물류개선을 추진하고, 산지수협과 도매시장 등 주요 유통시설간 정보망을 구축하여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다섯째, 부산과 인천에 국제적 수준의 수산물 종합물류가공단지를 건설하고, 이와 연계하여 국제수산물 거래센터를 구축하여 향후 동북아 수산물 교역의 주도권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후 모습>



### 3. 농업생산기반 관리조직의 개혁

#### 가. 농진공·농조·농조연 3개기관 통합배경

농업생산기반조성, 정비, 관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진공·농조·농조연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또한 농지개량조합은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경영실태가 악화되어 대다수 조합이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3개기관의 기능중복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제거를 통한 예산절감, 대 농업인 서비스제고를 위하여 이들 3개기관 통합이 불가피하였다.

#### 나. 농업기반공사 설립의 기본방향

농진공·농조·농조연을 대등한 조건으로 해체·통합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구축, 전문성을 제고 및 영농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확충, 관리 및 농촌구조 개선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1) 조직

현행 농진공(4사업단, 9지사, 69지부), 농조(104개), 농조연(본부, 8개지소)의 조직을 통합하여 본부4사업단, 9개 도사무소 80여개 지역사무로설 설치하여 지역, 현장중심의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 (2) 인력

농진공은 기획예산위원회 방침에 따라 감축하고, 농조, 농조연에도 농진공에 준하는 수준(17%)으로 감축하여 통합전 각 기관별로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3) 사업 및 기능

식량자급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조성, 농업용수의 이용 및 수리시설유지관리 및 농촌지역종합개발 등 농업생산기반확충 관리 및 농어촌구조개선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시설운영, 시설농업, 농업인 지도사업 등은 민간 또는 관련기관 단체에 점진적으로 이관하고, 농조 수익사업중 공사의 성격에 맞지않는 사업(양식업, 예식장, 주유소 등)은 민간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 다. 기대효과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절감과 조직효율화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설치, 관리업무를 일원화시킴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제고하여 견실한 시설물 관리가 가능하고, 농업용수전반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계획적인 용수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능력을 증진시키고 조합간 재정불균형 및 차등화된 서비스체제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체계 일원화를 통한 건설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업시행관련 부조리,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할 것이다.

### 라. 농업기반공사 설립준비 상황

#### (1) 설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업기반공사설립위원회는 정부, 3기관대표, 학계, 농업인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하여,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설립위원회운영규정 및 사무국운영규정심의확정, 설립사무국작업추진계획, 농업기반공사설립예산, 결원이 심한 농조대책, 연구용역계획심의, 주사무소 운영계획, 정보시스템 통합계획심의, 농조 정년조정 및 명예퇴직제도 실시 등을 심의·추진하였다.

## (2) 설립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은 농림부(7명), 농진공(8), 농조(6), 농조연(5) 직원으로 구성하여, 조직분야에 있어서는 3기관 기능통합에 따른 조직설계, 지역사무소 설립기준정립 및 설치방안, 농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교육실시, 3기관 자산실사 및 채권·채무확정, 정보시스템 통합준비, 사무실통합계획 수립 및 시·도단위 업무인수, 인계지침 마련, 3기관 해산 및 농업기반공사 설치 등 농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산분야는 3기관 기능통합에 따른 인력조정방안, 직급, 정년체계 정립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사업기능분야로써 2000년 농업기반공사 사업계획 수립 및 공사 자체예산편성, 농업용수 이용료 폐지 추진 등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농진공, 농조, 농조연 임직원 융화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설립 준비를 확실히 추진하고 있다.

## 4. 농정추진조직개편 및 행정규제개혁

### 가. 농정추진조직개편

#### (1) 제2차 정부조직개편 방향

정부는 '98년 제1차 정부조직개편 후 '99년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조직도 효율화·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정부부문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중앙부처 본부의 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기 위하여 규제·관리기능은 대폭축소하고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기능이 확대되는 분야는 보강하되 전반적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 (2) 농림조직개편

농림부 및 외청의 조직개편은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인력은 축소조정하고, 중복기능 또는 집행기능은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등 본부기구를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99.5.24.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하였다.

#### (가) 농림부

농산원예국을 폐지하고, 식량정책국의 식량수급기능과 농산원예국의 식량생산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식량생산국으로 개편하였다.

유통정책국에 농산원예국의 채소·과수·화훼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농산물유통국으로 개편하였다.

공보담당관·조사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식량관리과 및 유통관리과를 폐지하고, 농업정보통계관 소속의 정보화진흥담당과 경영유통정보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통합하였다.

농산물품질관리기능이 강화된 국립농산물검사소를 그 기능과 부합되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와같은 조직개편결과 종전 1차관보·1실·7국·4관·27과·12담당관·3소속기관에서 1차관보·1실·6국·4관·25과·8담당관·3소속기관으로 1국·2과·4담당관이 축소되었으며, 공무원 정원은 농림부 37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종전 국립농산물검사소) 268인이 각각 감축되고, 국립식물검역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해외병해충연구기능의 이관과 관련연구인력이 이체되어 10인이 증원되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계별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이미 직제에 반영된 '99년말까지 감축되는 268인외에 115인이 2000년말까지 감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직제개정이 '99년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 <농림부 조직개편 방향>

	차관보	실	국	관	과	담당관
종 전	1	1	7	4	27	12
개 편	1	1	6	4	25	8
증 감			△1		△2	△4



**(나) 농촌진흥청**

본청은 기술보급국을 기술지원국으로 개편하고, 동국의 기술연수기능 및 관련조직(기술연수과)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이관하여 농업기술교육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관리국의 연구협력과와 연구조정과를 통합하여 연구운영과로 개편하고, 동국에 농업자재품질관리 및 시험기능을 통합하여 농업자원과를 신설하였다.

농업과학기술원은 환경관리과와 농업생태과를 통합하여 환경생태과로 개편하고, 유전자원 및 해외병해충연구기능을 각각 종자관리소와 국립식물검역소에 이관하고, 유전자원과 · 해외병해충과 · 농약품질과를 폐지하였다.

원예연구소는 저장이용과를 품질보전과로 개편하여 ·이용기술연구기능을 폐지하고, 제주감귤연구소를 제주농업시험장 소속으로 이관하여 감귤시험장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천지소 및 작물시험장의 품질이용과를 폐지하고,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하였다.

이와같은 조직개편결과 조직은 2국 · 2관 · 8과 · 7담당관 · 12소속기관으로서 본청의 1개과와 소속기관의 4개과·1개지소가 축소되었으며, 공무원 정원은 본청 22인, 소속기관 119인 등 총141인이 감축되었다.

한편, 단계별 감축계획에 따라 이미 직제에 반영된 '99년말까지 감축되는 141인외에 73인이 2000년말까지 감축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직제개정이 '99년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소속기관	2차소속기관
총 전	2	2	9	7	12	26
개 편	2	2	8	7	12	22
증 감			△1			△4

### (다) 산림청

산불통제관 및 이를 보좌하는 산림보호담당관 및 산불방지도담당관을 폐지하고, 임업정책국에 산지관리과 및 산불방지과를 설치하였고, 임산물유통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신설되는 사유림지원국으로 이관하였다.

국유림·사유림의 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국을 국유림관리국으로 개편하여 국유림관리과·산림경영과 및 산지계획과를 국유림관리과·국유림경영과 및 산림보호과로 재편하고, 자원조성국을 사유림지원국으로 개편하여 자원조성과·산림환경과·산림토목과 및 기술지원과를 사유림지원과·산림자원과 및 산림소득과로 재편하고, 야생조수보호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광릉숲의 보전과 산림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립수목원을 신설하고, 이에 관리과·식물조사과 및 식물보전과를 설치하였다.

중부임업시험장의 수목원과를 국립수목원으로 이관하고, 장장의 직급을 3급 연구관에서 4급연구관으로 조정하였다.

의정부·운두령·강릉·춘양 및 보성국유림관리소와 북부·동부 및 남부 산림토목사업소를 각각 폐지하였다.

이와같은 조직개편결과 3국·2관·11과·6담당관·7소속기관(2차기관 40개)에서 3국·1관·11과·4담당관·8소속기관(2차기관 32개)으로 개편되어 1관·2담당관·5개국유림관리소 및 3개 산림토목사업소가 축소되었으며, 공무원 정원은 산림청본청 12인과 소속기관 119인 등 총 131인이 감축되었다.

#### <산림청 조직개편 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소속기관	2차소속기관
종 전	3	2	11	6	7	40
개 편	3	1	11	4	8	32
증 감		△1		△2	1	△8

## 나. 농림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 (1) 주요 추진상황

WTO체제의 출범 등의 세계화추세에 따라 정부는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종전의 규제완화는 종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별도의 검증 절차없이 각종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존규제의 존폐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되, 환경·안전·보건 등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생 및 품질관리 등 국민의 식생활 및 보건과 관련된 규제는 엄격하게 시행하면서도 국내외적 산업·행정여건변화로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농업생산성 제고를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였다. '98년 농림부는 '98규제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전체규제 701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대부분 '99년도에 실제적인 농림분야의 규제개혁성고가 이루어졌다.

### <'98년 농림부분 규제개혁 추진실적>

규제 총 건수	정비 실적			'99이후 존치
	폐지	개선	소계	
701 건	352(53)	166(18)	518(71)	183

( )내는 농안법(국회계류중)과 약사법 개정 필요규제

## (2) 주요 개선내용

### '98년 규제정비계획 주요내용

#### <농지분야>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 확대
  - 농지소유상환을 세대당 3ha → 5ha 확대
-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등
  -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생략 및 중소기업 창업공장에 대해 3년범위내에서 농지조성비 분할납부 허용

#### <양곡관리 및 농산물 검사분야>

- 양곡매매업의 신고제 폐지 및 양곡도정업의 등록제 개선
  - 양곡매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 양곡도정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없이 영업이 가능토록 자유화하여 자가도정을 용이하게 함

#### <농자재산업 분야>

- 농약제조 품목등록시 제출하는 시료량의 최소화
  - 품목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시료량을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감량하여 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 농기계 구입의무자에 대한 교육의무 폐지
  - 업체의 교육필요성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여 자율성제고 및 부담경감

### <축산분야>

- 축산업(양돈·양계업) 등록·허가제 폐지
  - 축산업 등록·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허가 축산업자에 대한 수급 조절명령, 초과사육부과금, 납부명령 및 사육가축 감축명령 등을 폐지하여 축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자율경영 강화

### <산림분야>

- 조림비용 사전예치제 폐지 등
  - 조림비용 사전예치를 폐지하여 벌채업자의 부담경감

### <기타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제한 폐지 등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99년 규제정비계획 주요내용

-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면제대상 확대
  - 농지처분 의무 대상 중 농지개량을 위해 경작을 하지 못한 경우는 농지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편입된 농지위에 간이농업용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현행 3년한도에서 1회만 가능하던 것을 1회연장(6년범위) 가능토록 개선
- 대체농지조성비 감면범위 확대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및 농어촌의 육아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하여 농촌에 들어서는 복지시설 설치자에게 실질적 혜택부여

- 일정규모 이하의 양곡가공업(제분업,제조업) 등록제 폐지
  - '98년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양곡판매업을 완전 자유화 하였고 양곡가공업중 도정업을 신고제로(일정규모이하는 신고의무 면제)완화 한데 이어 양곡가공업중 제분업 및 제조업의 경우에도 일정규모이하는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가공업체 설립상의 진입제한 완화
- 사료 성분등록제의 신고제 완화 및 각종시설기준 완화
  - 현재 사료제조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을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여 제조업자의 등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사료제조업의 진입에 따른 각종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규로 사료제조업 등의 참여 희망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
- 농어촌휴양사업 양도·양수 신고제 폐지
  - 농어촌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시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사유재산 처분에 따른 자율성 보장

#### 다. 수산분야 행정규제 개혁

해양수산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존규제의 50%이상 폐지를 추진하고, 수산자원보호 및 식품위생 등 사회적 규제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품질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또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98.4.7)하고 산하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상황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산업 종사자가 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였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내용을 보면

먼저 수산업법('99.4.15) 및 수산업법시행령('99.3.3)을 개정하여 어장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어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등은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여 성실한 어업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어장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어획물운반업과 수산물가공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과 수산관련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며, 연안어업의 종류를 16종에서 8종으로 통합하여 지역별 어업여건 및 시기에 적합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99.2.8) 및 시행령('99.3.3), 시행규칙('99.5.25)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의 내수면어업 정한수 설정, 패류채취 어구제한을 폐지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내수면어업 제한 또는 정지요건을 삭제하여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어항법('99.2.8) 및 시행령('99.4.7)을 개정하여 어항시설사업자의 사업 소요비용 예치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에 귀속된 어항시설의무상사용 수익 기간을 연장(20년→30년)하여 어항시설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충분한 투자비회수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을 개정('99.3.18)하여 양식장관리선 사용시 시·도 선적제한, 양식어장 청소시 어선사용제한 등을 폐지하고

수산물검사법('99.2.5)을 개정하여 수산물검사대상중 수출용수산물의 의무검사를 폐지하고 수산제품 생산과정검사를 협정이나 수입 조건으로 요구시에만 하도록 축소하였다.

앞으로도 잔여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제의 신설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사전 검증과 규제 일몰제의 확대 등으로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할 예정이다

###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 1. 경쟁력있는 경영주체의 육성

##### 가. 배 경

WTO체제 출범과 농산물시장개방으로 농어업분야에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농어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 추세로 전문기술농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농어업 인력육성이 시급하게 되었다.

특히 농어촌 노동력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농어업 생산성 향상 둔화, 농어촌사회의 활력 감퇴 등 산업간·도농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내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기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고급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을 갖춘 농어업전문인력 육성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시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 나. 추진방향

가족노동력에 바탕을 둔 개별경영체와 농업조직에 바탕을 둔 법인경영체로 구분하여, 개별경영체는 후계자,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법인경영체는 농업생산 및 이와 관련된 저장·가공·유통 등 2·3차 산업기능을 포함하는 Agribusiness의 중심체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농림계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도 확대·개편하여 농업인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농업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농업인 스스로 경영마인드를 함양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경영모델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경영체의 발전수준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다. 농어업인력 육성시책

### (1) 농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지난 '81년부터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 농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98년까지 총 115,532명의 농어업인 후계자를 선정하여 17,619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였다.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92년부터 매년 농어업인 후계자를 1만명씩 지속적으로 선정·육성하여 전업농·선도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종합지원하고 있고, '99년도에는 5,426명을 선정하여 1인당 20~50백만원씩 총 1,659억원을 개인별 영농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 <연도별 육성인원 및 자금지원 현황>

구 분	'81~'96	'97	'98	'99	합 계
○ 인원(명)	97,369	9,374	8,789	5,426	120,958
- 농 업 인	88,643	8,526	7,862	4,819	109,850
- 어 업 인	8,726	848	927	607	11,108
○ 지원자금(억원)	12,465	2,500	2,654	1,659	19,278

## (2) 2004년까지 15만호의 전업농·전업어가 육성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농과 전업어를 확보할 목적으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4년까지 15만호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 전업농의 경우 가족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을 주된 작목으로하여 최근 3년이상 그 품목을 계속 경영하고, 영농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장비조작능력을 가지고 있는 55세 이하 경영주를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98년까지 73,102호의 전업농을 선정하여 2조 6,1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에도 8,113호에 농지구입지원 등 5,588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쌀전업농의 경우 '97년까지 6만호를 선정하는데 이어 '99~'2002년간 매년 1만호씩 총 4만호를 추가 선정하여 자금 등 영농기반확대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업어가는 2004년까지 3,105호를 육성할 계획이며 최근 3년이상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고 있고 경영주가 55세이하인 어가를 전업어가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98년까지 1,300호의 전업어가를 선정하여 685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도 173호에 97억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어업 경영체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 (3) 법인경영체의 육성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소규모 농가들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제도를 도입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98년 12월말 현재 6,381개소(영농조합법인 4,711개소, 농업회사법인 1,670개소)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법인의 난립 및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운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한 경영상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회생불가능 법인에 대한 퇴출 유도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96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99년 6월말 현재 325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증가추세에 있다. 영어조합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대상 선정요건을 설정하여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4) 농업교육의 내실화

새천년 지식기반사회와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농업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99년도에는 2,335백만원을 지원하여 67,180명을 교육하였으며, 농업인 교육훈련 체제를 대폭 개선하였다.

교육수요자인 농업인의 실질적인 교육수요조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대상자 설문조사, PC통신등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운영하였고, 농업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지식인 성공사례』, 경영교육, 정보화, 환경농업 교육 등을 15시간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는 의무화 하였다

교육기관간 중복된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에 회계·경영반을 별도로 개설하여 국가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꾀하였다.

또한, '98년도 중단한 후계자해외훈련을 하반기에 재개하여 선진해외농업기술 및 경영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 (5) 농업경영혁신추진

농업구조개선투자로 경영규모화와 시설·장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나 경영능력향상이 병행되지 못해 투자효과가 조기에 정착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농업인의 경영혁신노력을 측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일선 시·군 지도계통조직을 통한 표준진단표 보급과 민간 컨설팅 지원사업을 '99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였다.

농업인들이 표준진단표 작성을 통해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으며, 진단결과를 다른 농가와 비교해 보아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 개선해 나갈수가 있다.

또한, 보다 고급경영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컨설팅지원사업을 '99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여 총2,800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우수한 민간컨설팅능력을 농가와 적시에 연계시켜 기술,경영등 종합컨설팅을 실시하므로써 우리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한단계 진보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6)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을 위해 '98년 8월 여성농업인단체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여성농업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99년 2월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본 골격하에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을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양성평등의 실현과 지위향상 그리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나갈 방침이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경감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체형에 맞는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21C 지식농업시대에 대비하여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확대하였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 농업관련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농림관련 전문여성의 D/B를 구축하고, 농림수산정보망(AFFIS)에 「여성농업인 열린광장」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아울러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등으로 농업노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이를 대신하는 「농가도우미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여성농업인교육 프로그램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의 기계화·현대화

### 가. 생산기반 정비

#### (1) 진흥지역 중심으로 우량농지에 대한 경지정리 촉진

일반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필지의 규모화, 용·배수로 정비 및 구조물화, 농로의 정비와 환지를 통한 분산된 개인 농지를 집단화하는 사업으로, 영농기계화 노동시간 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할 수 있어 쌀경쟁력 제고 대책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 665천ha와 농업진흥지역밖 135천ha를 합쳐 800천ha를 완료할 계획으로서, '98년 봄까지 진흥지역은 89%인 592천ha를 추진하였고 진흥지역 밖은 목표량의 64%인 86천ha를 완료하였다

'99년도에는 '98년 가을에 착수한 12천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에 9천ha를 착수하여 2000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 <일반경지정리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총 논면적	목 표	'98년까지	'99년계획	2000년이후
○ 사 업 량	1,157	800 (915)	678 (778)	12 (14)	110 (123)
- 농업진흥지역	742	665 (760)	592 (678)	12 (14)	61 (68)
- 농업진흥지역밖	415	135 (155)	86 (100)	-	49 (55)
사 업 비	-	95,204	54,583	3,292	37,329

※ 마무리 기준, ( )는 용배수로, 도로를 포함한 구역면적

## (2) 우량농지 200천ha를 대구획경지재정리 추진

대구획경지재정리는 이미 경지정리는 되었으나 필지규모가 소구획으로 대형농기계 영농이 어렵고 농로가 없거나 좁아서 농기계 통행에 불편하며 용배수로는 관배수 기능이 겸용이거나 토공으로 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운 지역을, 필지규모는 3,000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 구조물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 및 농산물 운반에 편리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여건이 불리한 평야부 우량농지 20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시작하였는데, '99년 봄마무리 까지 67천ha를 완료하여 34%를 달성하였으며 '99년도 가을에는 5천ha를 착수하여 2000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은 평야부 우량농지를 대형농기계 사용과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하도록 경지재정리함으로써 전문영농조직이 대규모로 영농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보다 큰 효과가 있다.

###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목 표	'98년까지	'99년계획	2000년	2001년이후
○사업량(천ha)	200	55	12	5	128
○사업비(억원)	50,132	14,143	2,498	1,166	32,325

※ 마무리 기준

## (3)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밭기반정비 확대 추진

국민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채소, 과일 등 밭작물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며, 논에 재배되고 있는 시설채소 등 밭작물을 밭으로 유인하여

쌀자급기반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밭기반정비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전체 밭 753천ha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110천ha를 개발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98년까지 6,292억원을 투자하여 개발목표의 27.3%  
인 30천ha를 개발하였으며, '99년에는 1,55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을 투자하여 6천ha를 개발할 계획이다.

####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2004년까지 개발목표	'98년까지	'99년계획	2000년이후
○사업량(천ha)	110	30	6	74
○사업비(억원)	25,794	6,292	1,550	17,952

#### (4) 기계화 경작로 22천km를 2004년까지 확·포장 완료

농작업의 기계화가 확산되고, 농기계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기계화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유통시설간 농로를  
확·포장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주요 간선농로 22천km에 대한 확·포장을 완료  
할 계획이다. '98년까지 5,607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개발목표의  
25.5%인 5.6천km를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99년에는 1,871억원을 투입하여  
1.8천km를 확·포장할 예정이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계화영농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운반시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촌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통학로 등 일상 생  
활도로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농촌생활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구 분	2004까지 개발목표	'98년까지	'99년계획	2000년이후
○사업량(천km)	22	5.6	1.8	14.6
○사업비(억원)	29,262	5,607	1,871	21,784

**(5) 수리시설 개보수**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중 재해취약시설과 흙수로 12,70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11,707개소의 수리시설중 '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2,115개소이고, 간지선 용·배수로의 경우는 44천km중 62%인 27천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96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91개소 등 전국 1,587개소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45년도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 48%인 759개소에 달할 뿐 아니라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이탈,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제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에 의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98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조수리시설 4,816개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56개 지구, 지방관리방조제 467개 지구에 총 10,78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9년도에는 2,940억원을 투입하여 199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을 완료하였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

구 분	개보수상		'98까지		'99계획		2000 이후	
	대	%		%		%		%
	개소							
○ 사업물량	14,295	100	5,339	37.3	199	1.4	8,757	61.3
- 농조수리시설	12,708	100	4,816	37.9	120	0.9	7,772	61.2
- 국가관리방조제	96	100	56	58.3	9	9.4	31	32.3
- 지방관리방조제	1,491	100	467	31.3	70	4.7	954	64.0
사업비 계	억원							
	45,981	100	10,781	23.4	2,940	6.4	32,260	70.2

**(6) 배수개선사업**

배수개선사업은 하절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경지 유실·매몰, 수리시설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재해대책사업이다.

전국의 상습침수 농경지는 180천ha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안성천, 삼교천 등의 큰 하천변과 그 지천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수렁논 등 저습답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영농기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하배수개선사업의 대상면적은 55천ha에 달하고 있어 2014년까지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98년까지 상습침수 농경지 및 저습답 235천ha중 84천ha가 완료되었으며, '99년도에는 140개 지구에 2,025억원을 투입하여 이중 34개지구 8천ha를 완공하여 배수개선율을 39%로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배수개선사업 추진계획 >**

구 분	대 상	'98년까지		'99년계획		'99년이후		
		천ha	%	천ha	%	천ha	%	
○ 사 업 량	235	100	84	36	8	3	143	61
- 지표배수	180	100	82	46	8	4	90	50
- 지하배수	55	100	2	4	-	-	53	96
○ 사 업 비	35,800	100	9,700	27	2,025	6	24,075	67

**(7)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농업진흥지역내의 50ha이상 한해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등 지표수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있다.

'98년까지 총논면적 1,157천ha중 881천ha에 대한 용수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아직도 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업진흥지역내 논 735천ha에 대한 수리시설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규개발 96천ha를 계획하고 있으며, 용수부족시 150천ha에 보강개발 계획을 추진중이다.

'99년도에는 2,567억원을 투자하여 54천ha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2천ha를 완공할 계획에 있고 연차적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

총논면적	목 표	'98년까지	'99년계획	2000년~ 2004년	2004년이후
1,157천ha	1,100	881	2	84	133

**(8)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수자원 확보,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새로운 간척토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운송거리 단축, 생공용수 공급 기반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지구를 비롯한 7개지구, 124천ha를 대상으로 '98년까지 30%(14,118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고, '99년도에는 35%(국고 1,682억원, 농지관리기금 900억원 계 2,582억원)로 전망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

지구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98년까지	'99년계획	2000년이후	
계(7지구)	124,430	47,154	14,118	2,582	30,454	
미호천(Ⅱ)	4,430	1,786	893	192	701	'89~2001
금 강(Ⅱ)	43,000	4,873	1,317	270	3,286	'89~2004
홍 보	8,100	2,267	1,189	180	898	'91~2003
영산강(Ⅲ-1)	13,160	5,723	1,325	200	4,198	'85~2004
영산강(Ⅲ-2)	7,840	2,414	773	100	1,541	'89~2004
새만금	28,300	22,307	8,621	1,630	12,056	'91~2011
영산강(Ⅳ)	19,600	7,784	-	10	7,774	타당성 및 기본조사 중

## (9)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생산기반시설사업은 전국 연안 자연부락 단위인 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지역의 교통, 상권, 물류, 관광등의 종합적인 기능과 어업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94년부터 2004년까지 5,432억원을 투자,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선착장·물양장 등 어선계류시설을 포함하여 '98년까지 전국 77개 어촌종합개발사업권역내의 소규모항포구를 대상으로 371개 어항시설을 완료하였으며, '99년에는 24개 권역내의 55개 항포구에 142억원을 투입,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 나. 농업의 기계화

### (1) 농업기계화 추진방향

'99년도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에 있어 벼농사는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규모화와 대형기계의 일관기계화로 추진하고, 밭농사는 아직도 기계화가 저조하므로 신기술농기계로 지정된 밭농사용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기계구입자금의 20%를 보조지원 함으로써 밭농사 기계화를 촉진키로 하였다.

또한 공급된 농기계의 이용을 증진을 위해 농기계사후관리분야의 농기계부품공급확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2) 농기계 지원공급

'98년부터는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지원은 읍가지원으로 전환하였다. '99년도는 영농의 규모화와 대형농기계의 일관기계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70개소, 농기계공동이용조직 540개소 대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쌀전업농 4천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농기계의 적정공급모델을 기초로 시·군별로 경지면적, 기종별 부담면적 등을 감안하여 트랙터, 동력양기, 콤팩트 등 6개 주요농기계의 보유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농기계 보유현황을 분석하여 적정대수의 농기계 공급을 유도하였다.

###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리용부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적기영농을 가능케하고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1998년의 187억원에서 1999년에는 360억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2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850개소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마을단위 순회수리봉사도 실시하였다.

### (4) 밭작물 및 축산분야의 기계화 촉진

벼농사 주요농작업의 기계화율은 '98년 현재 97%에 달하고 있으나 밭농사 주요농작업의 기계화율은 42%에 머물고 있어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밭작물과 축산분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늘, 사과, 시설오이, 시설장미, 양돈 5개작목을 대상으로 14개의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98년에 양과, 양계를 대상으로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99년부터 심토파쇄기,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승용관리기용쟁기 등의 농기계를 추가로 지원공급하고 있으며, 무, 배추, 고추 등 5개작목에 대하여 기계화재배양식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밭작물용 농기계의 개발 비용을 줄이고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첨단 농기자재의 국산화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자금도 지원한다.

### (5) 여성용 농기계의 개발 보급

농촌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여성화·노령화 추세에 따라 여성이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를 개발 보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99년도에는 농업기계화 연구소를 중심으로 농촌여성의 농기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며 2000년도까지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중소형 농기계를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확대

농가가 생산한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판매과정을 종합적으로 일관 처리하는 현대화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을 절감하고, 쌀의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낮추며, 고품질의 지역별 특산미를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수확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저장하여 가격안정 및 가격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98년까지 301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한데 이어, '99년에는 11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360개소로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인근 쌀 작목반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

(단위 : 개소, 억원)

	'91년~'98년	'99년계획	2000년~2004년	계
개 소 수	301	11	48	360
사 업 비	3,124	461	4,817	8,402

###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 및 토양등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 풍·흉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반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시설, 공동육묘장 설치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리온실, 첨단생산시설과 예냉시설 등 유통시설을 갖춘 생산·유통 종합단지로서 과수 900개소, 시설채소 530개소, 화훼 200개소를 2004년 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유리온실 설치를 확대하고, 온실의 표준화 및 시설자재 국산화로 설치단가를 인하해 나갈 계획이며,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생산기반의 확충과 인삼유통지원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수출증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현장애로 기술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파종·수확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며, '99년까지는 규모화 현대화된 생산시설과 유통·연구 교육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첨단시설원예 농산물생산단지 1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3) 축산시설 현대화

축산시설의 기계화·현대화를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양축농가에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의 설치로 사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축산물유통개선을 위한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추진, 공판장 및 냉장육 판매업소 시설 추진, 사료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자가배합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0년까지 총 10개소(기존 2개소 포함)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5개소를 완공하였고, 7개소는 추진중이며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유통단계의 축소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경영체가 생산·가공·유통을 종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양축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도축·가공·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축산전문계열업체 14개소에 '98년 24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99년에는 7개업체에 187억원을 지원하여 축산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99년 현재까지 계열화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돼지계열화는 16개업체가 중심이 되어 1,430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육계계열화는 9개 업체에 1,279농가, 산란계 계열화는 4개 업체에 118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업체(양계 2, 양돈 5)가 사업을 추진중이다.

'99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하여 17개 지역축협(도별 2개소, 제주 1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3.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 가.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참여도 신장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은 농업후방관련산업으로서 농산물 수요를 증대하고 농산물의 가공처리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68년 특산단지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89년부터 농산물가공산업으로 본격 추진한 사업으로 향후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업관련산업의 핵심사업이다.

'98년말까지 3,1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국에 1,395개소의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총 매출액은 5,107억원, 농어촌 유희인력 고용은 약1만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협, 축협 등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 경영체와 5인이상 농가공동체로 전통식품개발사업과 산지일반가공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99년도에는 25개업체에 7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최근의 국내 경기침체로 제조업 전체가 위축되고 식품산업 소비침체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많은 농산물가공업체가 부도 등 경영부실사태가 나타나며 따라 회생가능성이 없는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영세·한계업체 110개소를 퇴출조치하여 전체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시설비 지원에서 소프트웨어적 경영·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9년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농산물가공공장 기술·경영컨설팅사업을 실시하여 농산물가공업체의 기술·경영·마케팅 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요확대를 위하여 전체 전통 가공상품에 대한 TV, 라디오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나. 농기계산업의 육성

### (1) 주요기종의 전문생산업체 육성 및 수출확대 추진방향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농기계 생산비용의 절감과 R&D 투자 강화 및 해외시장 수출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농기계 업계 주도로 구조조정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기종별 전문화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별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제휴를 통한 거점생산화, 수출전략 모델 개발에 대한 R&D 및 생산비축자금을 지원하고, 2000년도부터 신규로 국제농기자재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한편 아시아 등 주요국가의 농업기계화 추진시책 관련 자료를 수집 제공할 계획이다

### (2)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 및 수출지원실적

'99년에 농기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계별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우선 1단계로 주요부품 및 엔진(대형)의 공용화, OEM화를 통한 생산비용의 절감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트랙터, 콤바인 등 승용형농기계의 기종별 사업교환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원가절감을 촉진키로 하였다.

농기계 수출지원을 위하여 '99년도에 중국 AGRO-FOODTECH'99 참가비 58백만원을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99.5.12부터 5.18까지 농업기계화연구소 주관으로 ESCAP/이양·파종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농기계의 우수성과 해외시장 진출가능성을 홍보하였으며 '99년도에 중국, 인도네시아등 아시아 주요 수출대상국의 농업기계화 시책에 관한 자료를 3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 (3) 향후 추진방향

농기계산업의 단계별 구조조정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추진하고, 2000년도에 국제 농기자재박람회 참가비 2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농림기술개발사업에 의한 수출 전략모델 개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 다. 종자산업의 육성

### (1) 종자산업 육성방안 추진

'97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 등 종자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자수급의 안정도모와 종자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육성방안을 '99년 5월부터 추진중이다.

### (2) 종자업체의 품종육성 경쟁력 강화 및 종자 수출확대

채소부문의 종자업체는 '98년말 현재 50여 업체로 품종육종기술 및 경영규모 등이 다국적 기업에 비하여 비교열위에 있으므로 종자업체의 전문화 촉진을 위하여 업체별 전문작물을 2~3개 작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99.7) 앞으로 품종육성 관련 정책자금은 전문작물에 대하여 중점지원하고 농촌진흥청 등과의 첨단육종 기술 협동연구나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우량종자개발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92-'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2004
지원금액	16,378	3,757	3,000	2,440	5,500	24,500

무, 배추, 고추 등 전통 채소품목의 세계적 신품종육종 기술을 이용하고 협소한 국내 종자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해 종자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99.10월 현재 13,842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75%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출수매자금 및 수출품종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종자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3) 유전자원 관리강화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 품종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99.6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보유중인 유전자원은 142천여점이며, 국가 및 민간부문의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 유전자원 관련 규정을 정비중에 있으며 또한, 수집·보존중인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를 2004년까지 완료하여 신품종 육종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4.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정보화

### 가. 농림수산물기술개발사업 추진

#### (1) 개요

농림수산업분야의 기술은 타분야와 달리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술의 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이 농림수산업과 관련한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세계는 지금 기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수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통일을 대비한 기초식량의 자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21세기 농림수산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농특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농림기술개발사업(첨단기술개발사업 2,678억원,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1,472억원)에 4,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산분야에 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생물, 물리, 화학, 기계, 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타 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수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의 향상 또는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와 품목별 일관기술 연구를 위한 기획연구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영농·영림·영어 현장에서 재배, 사양, 생산기반, 기계, 시설, 유통, 가공, 생활, 환경, 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애로기술과제와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을 개발하기 위한 농업인개발과제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림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연구의 주체가 되어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2) 과제현황

농림분야의 경우 '98년말 현재 총 1,261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과제가 766건, 첨단기술개발사업과제가 484건,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과제가 11건이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중 현장애로기술과제는 '94년에 188건, '95년에 108건, '96년에 82건, '97년에 47건, '98년에 73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498건이며, 농업인개발과제 또한 '97년에 처음으로 130건, '98년에 138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268건이다.

첨단기술개발사업 중 첨단기술과제는 '95년에 처음으로 205건, '96년에 97건, '97년에 70건, '98년에 91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463건이며, 기획연구과제는 '97년에 처음으로 11건, '98년에 10건이 선정되어 총 선정건수는 21건이다.

한편 벤처형 중소기업 개발과제는 '98년에 11건이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농림기술개발과제 현황>

구 분	연구과제			
	선정	계속	완료	기타
현장애로기술과제	498	160	312	26
첨단기술과제	463	332	116	15
기획연구과제	21	21	-	-
농업인개발과제	268	222	45	1
벤처형중소기업개발과제	11	11	-	-
계	1,261	746	473	42

※ '99년도 신규과제는 현재 협약을 체결 중에 있음.

한편 '98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473개 과제로 이중 123개 과제는 산업화 또는 산업화 추진 중에 있으며, 313건을 특허출원하였으며, 111개 과제는 현장적용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등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 계약을 체결한 우수 기술개발 과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업체 기술이전우수과제 내역 〉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기술이전기업체	기술료 징수액 천원
○ 온라인 컴퓨터 건조제어기 개발	안동대학교	영농농기구 제 작 소	11,335
○ 축산분뇨 및 액비처리를 위한 연속시스템 개발	(주) 우 진	(주)우진테크	26,370
○ 고추 공동집하 및 자동화 처리 시설 개발	상주산업대학	신흥기업사	9,000
○ 늙은 호박의 가공기술개발	한국식품개발 연 구 원	울릉도 농협 대양영농조합	기술료감면
○ 들깨의 종합적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개발 연 구 원	포천명산참기름 유 럽 식 품	기술료감면
○ 더덕의 향긋미 증진 및 가공품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천지영농조합	기술료감면
○ 다목적 승용관리기 본기 및 작업기 개발	대동공업(주) 기술연구소	대동공업(주)	450,000
○ 솔잎혹파리 방제용 자동수 간주사기 개발	임업연구원	남산엔지니어링	22,200
○ 식이버섯 자실체 및 균사체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포 천 중 균 배 양 소	(주)포천버섯 개 발	기술료감면



수산분야는 총 200개 과제를 선정하여 122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78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며 '98년말까지 연구가 완료된 122개 과제중 14개 과제가 산업체에 기술이전되었고, 6개 과제는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19개 과제는 대어업인 기술지도에 활용되고 있고, 31개 과제는 특허출원하는 등 연구 성과가 조기에 어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 (3) '99년도 제도개선 사항

연구개발비 비목을 축소 조정하여 연구비 집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낭비적 요소가 많은 연차보고서 발간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훈령)을 개정('99.3.12)하였다.

최종평가결과 “불성실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으며,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성과관리과 신설하여 성과활용 업무의 체계화를 통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실용화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 나. 농업정보화의 확대 추진

### (1) 농업정보화 기반의 확충

농업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부터 추진하여 온 농림수산종합정보망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998년 현재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림관련 기관·단체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망을 산하기관과 단체 및 연구소 등으로 확충하여 2002년까지 50개 기관·단체를 연결할 예정이다.

현재 농림수산정보서비스(AFFIS)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08개 정보제공기관(IP)을 2002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대가를 지불하는 등 IP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으로의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정보활용,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이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AFFIS 운영기관인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인터넷서비스 제공기관(ISP)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2)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및 정보문화의 확산

### (가) 정규교육

농업정보화의 활성화는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이 관건이라 보고, 2004년까지 15만여 농업인 정보화교육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정보활용능력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농사일로 바쁘거나 지역적 여건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농가를 직접방문 농업용 SW설치, 컴퓨터 기초교육 등 컴퓨터관련 특성화대학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 ○ 정보교육 실적 및 계획

(단위:명)

교육과정	'98 실적	'99계획	2000~2004계획
기본교육	9,000	9,000	60,000
전문교육	3,500	4,000	20,000
방문교육	600	3,300	40,000
계	13,100	16,300	120,000

또한 농업인이 컴퓨터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유발하고,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우수사례 발굴·보급, 정보경진대회, 표어보급과 농업인이 쉽게 접근가능한 인쇄매체(팜플렛, 농업정보 소식지 등)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보문화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나) 특별교육

농업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국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360명의 정보화 공공근로요원을 선발하여 농촌현장에 직접 파견해 농업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기 교육 수요 조사한 전국의 9,554농가를 대상으로 '99년9월13일부터 2000년2월14일까지 공공근로요원이 직접농가를 방문하여 농가당 평균 4일의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컴퓨터 활용기초, 인터넷활용, 농림수산정보망이용, 농업용 소프트웨어활용 등이다.

'99년9월13일부터 11월12일까지 총 10,390회의 농가방문교육을 실시하여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한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 (3) 농업경영·유통분야 정보화 촉진

### (가) 이용자 편의위주로 농업정보 정비·체계화

기존의 기관별, 분야별 농업정보를 품목별로 종합하여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위주의 농업정보 체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수혜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의 정보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단체의 DB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소재 안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이로써 어떤 기관단체나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생산한 정보라도 농업인이나 소비자가 한번의 접속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는 사실전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업정보서비스를 생산·출하조절 등

농업인의 영농·경영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된 정보서비스체계로 개선함을 뜻한다.

### (나) 유통분야 정보화 강화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직거래 확대 등 유통정보화를 추진하여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에 신지식농업인을 위주로 품질인증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등 106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 200농가로 확대하고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농산물 통합쇼핑몰(www.acim.or.kr)을 금년 9월에 개장함으로써 농산물 상품정보(5,728개)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종합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농산물 통합쇼핑몰의 방문건수는 월평균 14,000건, 주요 인기품목은 쌀, 벌꿀, 전통과자, 유기농산물 등으로 나타났다. 연차적으로 상품 일괄주문 및 지불경제에 대한 통합몰의 기능을 확충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개별쇼핑몰을 확대·연계하여 개별 생산농가의 단품위주의 취급농산물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본격적인 사이버마켓 시대를 개척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유통경로로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촉진키 위하여 금년 12월에 송품장 등 4종의 산지유통 EDI거래서식을 표준화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채소류 5개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를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출하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지원하고, 단순가격 위주의 유통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품목중심으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자가 적기에 출하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의 판매가격 정보를 개선하고, 정보제공 유통업체를 확대시켜 소비자가 농산물 비교·구매가 가능하도록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보 유용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 **(다) 품목별 농업경영진단 소프트웨어(S/W) 개발과 보급**

농업생산비 절감 및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 스스로가 경영상태를 분석·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S/W를 개발·보급하고, 농업인들이 농업경영 S/W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까지 시설원예 및 낙농 등 10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용S/W와 온라인 통신망을 활용하여 동일 품목의 다른 생산자와 경영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자기경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농업정보119서비스, 정보화 공공근로요원 방문교육, (재)농림수산정보센터교육원 경영정보화과정등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경영S/W 이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기보급된 S/W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 앞으로는 더욱 영농현장에 밀착된 S/W를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라) 원격영농기술 지도시스템 구축 운용

농업인들이 영농기술 상담, 농업정책 문의 등을 위하여 직접 지도소나 정부기관을 찾아갈 필요없이, 화상멀티미디어를 통하여 농사지도 전문가나 정부관계관과 직접 대화하고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영농기술 지도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다. 어업분야 정보화 촉진

### (1) 어업분야 정보화 기반마련

새로운 UN해양법협약에 의한 국제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어업의 어로구역이 축소되는 현실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보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식기술정보 활용과 전국도매시장의 시황정보를 보면서 출하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어업부문에다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어촌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산업분야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업부문의 정보화 기반을 크게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어선조업DB구축과 수산물유통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어로어업에 필요한 어군정보와 출하에 필요한 시황정보 등을 어업인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수산물의 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정보통신이 PC통신에서 인터넷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어군정보, 위판정보, 어업기술정보, 어촌정보등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여 어업관련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 수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의 확대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중인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지위판물량 및 가격 등 수산물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99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은 향후 2002년까지 추진할 전체 수산물 유통 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8억 1천만 원중 14억 3천만원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받고, 잔여 사업비는 이번 사업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수협중앙회와 12개 산지수협에서 부담토록 하여 국가와 민간이 동시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

주요 내용은 우선 산지수협 및 도매시장 등의 보유물량과 가격정보를 Data Base로 구축하고, 수협중앙회에 수산물 유통관리시스템 및 수산물 알선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의 Web과 근거리 통신망인 LAN을 통해 상호연결할 계획이며

주요 서비스내용은 Web을 통하여 산지수협의 위판정보와 도매시장의 경락정보, 소비지도·소매시장의 거래관련정보 및 민간 냉동창고의 보유물량정보 등을 제공하며, 수협 백화점 등 대형소비처의 주문정보를 처리하여 향후 전자상거래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수산물 유통정보화 시스템이 완료되면 수산물유통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규격화 및 등급화를 통한 유통효율성이 증대되고, 직거래 유통마진 절감과 산지수협의 수익증대를 통하여 73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그외에도 산지수협의 업무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정보수집체계의 일원화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 가. 수출진흥 대책

#### (1) 국내 수출농업 기반 구축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그동안 꾸준한 농업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등 경쟁력강화 노력에 힘입어 상품성이 향상되었고 채소·화훼·돼지고기 등 신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IMF외환위기 이후 내수감소에 따른 소비부진을 수출로 타개하는 등 '98년에는 1,635백만불로 UR협상이 타결된 '94년에 비해 57% 증가하였다.

정부는 WTO체제하에서 농산물 교역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농산물 수출품 생산기반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즉, 화훼·과수·채소·돼지고기 등 경쟁력 있는 수출전략 품목 위주로 우수 농산물전문생산단지를 '99년에 2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각 품목별 특성을 실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농산물 수출전문 생산단지 확대 조성계획>

품목별	'98년까지	'99	2004까지
채 소 류	9	-	21
과 실 류	31	13	30
화 훼 류	8	9	20
돼 지 고 기	40	-	40
계	88	22	111



또한 돼지고기, 김치, 배, 백합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10대 수출전략품목에 대하여는 농진공, 산림청, 농유공, 한식연 등 9개 기관에 전담연구팀을 설치·운영하여 품질향상 촉진과 생산·유통자금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키위, 호접란, 파프리카 등 수출가능품목도 추가로 발굴하여 생산·유통기반 확충 등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 해외 농산물 시장개척 및 홍보 강화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적극적인 시장개척 차원에서 국제식품 박람회('99 : 25회)참가 및 농산물 해외 특별판촉행사 개최 등을 추진함으로써 구매선 확보·신상품 소개 및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전시·홍보·수출상담 등으로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특히 신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개발해 나가기 위해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특별판촉전, 시식회, 간담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와 병행하여 해외 판촉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박람회 참가 및 수출계약실적>

구 분 \ 년 도	'93	'94	'95	'96	'97	'98
참가횟수(회)	10	12	12	15	16	19
업 체 수(개)	212	238	288	508	470	614
수출계약(천\$)	26,856	76,320	104,121	140,691	164,122	208,952

이밖에 동경, 홍콩 등지에는 옥외전광판, 버스외벽, 빌보드광고 등을 통하여 인삼, 김치, 돼지고기 등 주요 수출상품을 소개하고 국제전문지 광고 게재, 홍보용 VTR(영,중,일) 제작·배포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전시회도 상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동경, 뉴욕 등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설치·운영중인 6개의 해외 농업무역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현지화적응 상품개발, 주요 전통품목 전시·홍보,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 및 일일사무소 제공, 각종 수출안내 등 수출지원기능을 전담해 나갈 것이다.

### <해외농업무역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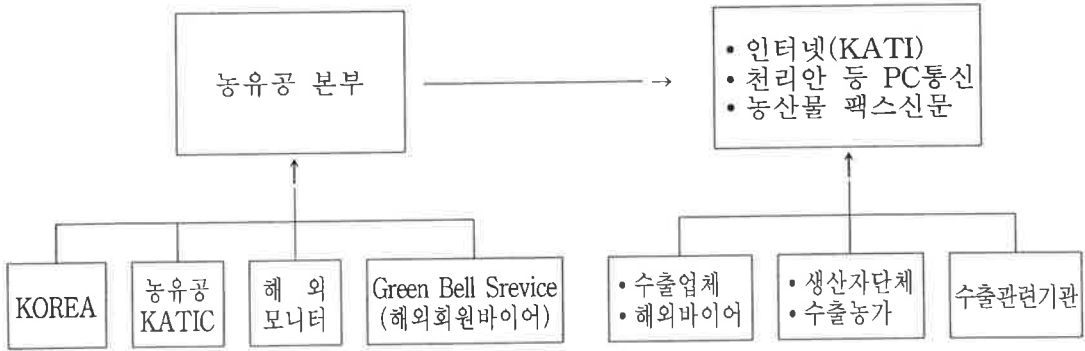
설치년도	'92	'93	'94	'95	'97
지역	화란	뉴욕	오사카	싱가폴,북경	동경

### (3)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

'96년부터 기설치 운영중인 『수출애로 상담실』을 '98년에 『농산물 수출 대책 상황실』로 확대 정비하여 생산자, 수출업체가 생산·수출과정에서 겪는 품종선택, 재배, 포장, 가공, 수송 등 현장애로 요인을 분석, 지속적으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특히 '99년에는 농산물수출대책회의를 현장에서 직접 장관이 주재하는 『이동수출장관실』을 개최하여 수출동향과 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해 나가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에 공로가 많은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입 및 농산물 수출유공자 표창과 아울러 자금지원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출전담기관으로 개편하여 정보, 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수출전략품에 대한 『주문정보서비스제도』, 팩스신문(농수산물 수출입 뉴스), Green Bell Service 등을 통해 생산자, 수출업체 및 해외바이어가 원하는 국내·외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 < 국내·외 시장정보 수집·전파 체계도 >



아울러, 우수 농수산물 수매·유통 및 시설현대화자금 등을 수출업체 등에 '98년의 2,768억원에서 '99년에는 3,021억원으로 확대·지원하여 자금애로를 적기 해소하고, '95.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요율을 50%인하(1%→0.5%등)하고 가격상승위험 보상비율도 60%에서 70%로 확대하였으며 가격상승 위험보험의 청약조건을 완화하고 보상개념을 현실화하는 등 수출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4) 수산물 수출진흥대책

수산물 수출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출시장이 일본, 중국, EU, 미국 등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시장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첫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하여 10백만\$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고 미주와 유럽에 수산물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한편, 수산물 해외특별 판촉행사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구매선 발굴과 상담및 홍보를 실시하고

둘째, 주요 수출상대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특히 한·일수산물교역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의 수출입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일 생식용 생굴 수출을 위한 과학적인 유통기한 조사 등 후속조치와 대일 수출용 활넙치 위생관리요령을 시행함으로써 일본에서의 통관전 위생검사를 면제토록 하였다.

셋째, 수산물 수출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카탈로그 제작을 지원하고, 주요 수출유망국의 시장을 조사하여 관련업계에 배포하는 등 업계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넷째,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역정보 사이트를 운영하여 중소 수출업체에 국내외 시장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신규 거래선 확보를 지원해 나가고, 수출전략용 신제품 개발과 수출주력업체 지정 등을 통해 수산업을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 나. 수입관리대책

### (1)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UR 농산물협상 결과에 따라 '94.12월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던 242개 품목의 수입을 년차적으로 개방하면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86~'88 평균수입량 수준의 물량은 계속해서 저율관세로 수입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필요한 물량을 정하였다.

#### < 수입개방 현황 >

구 분	'95		'96		'97		2001		제 한	
총품목수	1,424	166(당년)	1,344(누계)	15	1,359	37	1,396	8	1,408	16
자유화율(%)	94.6		95.7		98.3		99.4			
주요대상품목	보리, 옥수수 등		포도, 사과주스 등		돼지고기, 닭고기 등		생우, 쇠고기		쌀	

그리고 이러한 저율관세 물량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목별 특성에 따라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방식을 도입하였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오렌지 등 18개 품목 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국영무역 방식), 분유, 밤, 대추 등은 수입권 공매를 실시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입자를 결정하여 수입토록 하였다.

그리고 국영무역에서 발생한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에서 생긴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와 WTO 협정상 수입의무 이행을 조화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농업용원자재와 가공용 농산물 등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은 쿼타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이 '86~'88년 평균 국내소비량과 수입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국내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용 옥수수, 대두, 종계 등의 농업용 원자재 7개 품목과 참깨, 맥아 등 가공용 원료농산물 20개내외의 품목을 저율관세로 증량하여 국내관련 산업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 (2) 관련 법상의 각종 제도의 적극 활용

WTO 출범이전에 이미 자유화된 농산물 중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관련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메주, 당면, 표고버섯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표고버섯: 30%→90%).

또한 WTO 출범과 함께 자유화된 낙화생, 메밀, 녹두, 고구마전분 등 45개 품목의 경우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이들 품목중 낙화생, 메밀 등

13개 품목과 골분은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급증으로 국내축산업에 피해를 입힌 모조분유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구제조치로서 2001년 2월까지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앞으로도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농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 **(3) 원산지표시제 실시 단속 강화**

저가의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유통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산(176개), 국내산(148개) 및 가공품(105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원산지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수입농산물의 국내유통 질서확립 및 국내산과의 차별화를 기하도록 할 것이다.

### **(4)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1단계('92~'95), 제2단계('96~'97) 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외래 병해충 유입방지 및 수입농산물 안전성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검역기능의 지속적 강화를 위하여 '98~2000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3단계 검역기능 선진화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 **(5) 수입동향 점검**

WTO 체제출범이후 수입자유화되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수입동향을 점검하여 수입급증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정관세 부과 및 산업피해구제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으로써 개방체제하에서의 적극적인 수입관리로 국내농업 및 관련사업보호에 보다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 (6) 수산물 수입관리대책

'97. 7. 1일 이후 수산물 수입전면 개방 및 최근의 경기회복에 편승하여 수산물 수입의 급증에 따른 국내 생산어업인의 피해방지는 물론 저질 수산물 수입을 막아 국민건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첫째, 조정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2000년도에는 활뱀장어, 활붕어 등 수입급증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계속 또는 추가 부과 하고 또한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현재의 『중가세방식』에서 종량세를 가미한 『선택세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내 생산어업인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선검사 후통관 제도 확대 등 수입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역제도 강화차원에서 '99. 9월 부터는 중국산 뱀장어(대만산 뱀장어 포함)에 대하여 항생물질(옥시테트라사이클린)검사를 추가 검사항목으로 지정하여 수산물 안전성 제고를 기하겠으며, 향후 붕어, 잉어 등 활어에 대하여도 이식승인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셋째, 원산지 미표시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원산지 단속 방식을 허위표시에 대한 고발 위주로 전환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활어도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생산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할 계획이다.

넷째, '99.11월에 시작될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협상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새로운 수산물 수입제도를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6. 친환경농업의 육성

최근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농업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기본적인 국가업무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을 환경과 조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농업의 환경정화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림업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 중장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을 '98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우리나라 농촌이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축산분뇨 발생 및 농약빈병·폐비닐·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농업환경이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 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농약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현재까지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농약사용량을 2004년까지 3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벼의 경우



병해충 방제를 80년대 10회 내외에서 현재는 8~9회로 줄었으며, 2004년까지는 3~4회로 줄여 농약사용량을 감축하고, 천적이용 등 병해충종합방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독성이 낮은 농약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2)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화학비료는 성분량으로 연간 86만톤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적정시비량 추정치 70만톤보다 16만톤정도 더 사용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집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는 잉여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비료사용량을 2004년까지 3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토양정밀검정을 실시, 적정량을 시비하도록 지도하여 비료사용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분뇨 등 농업부산물을 부산물비료로 자원화하며, 완효성 비료를 개발·보급하여 비료사용량 및 유실량을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축산분뇨의 자원화

축산분뇨는 '98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축종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연간 약 49백만톤에 달한다. 축산분뇨처리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대상농가는 농림부에서 처리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축산분뇨를 공동수거·정화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98년말 기준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는 총 83천 농가로 91%인 75천 농가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설치농가 중 83%는 퇴비화시설, 17%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였다. 축산분뇨는 2010년까지 축산퇴비로 자원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 (4)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98년말 현재 3,349천대로서 이 중 약 2.5%인 85천대 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76%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중이다.

이러한 폐농기계를 수거, 해체, 압착할 수 있도록 폐농기계처리장 설치를 '94년부터 '96년까지 지원하여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에서 “폐농기계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폐농기계처리장에서 수거·처리토록 하고 있다. 또한 폐농기계 수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시장·군수가 마련한 장소이외에 폐농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구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98년 각각 62백만개, 97천여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을 환경부 산하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57~60% 수준에 그쳐 농촌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4월과 11월을 중점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농약빈병의 경우 '97.10월부터는 농협을 통하여서도 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자체가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지고, 지력은 일본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환경의 개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시용, 객토사업 및 농업용수 수질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의 기본인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며, '97년부터는 지원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고, '99년에는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로 전농경지가 개량되도록 하고 있다.

### **(2) 객토사업**

사질토 등과 같은 생산성이 낮은 토양과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농경지를 개량하기 위한 객토사업은 '96년까지는 1년 상환의 단기성 농업 경영 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이 사업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97년부터는 국고융자(3년)사업으로 전환하여 객토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특히, 휴·폐광산 인근의 오염농경지의 개량을 위해서 '99년부터는 지역특화 사업에 포함시켜 전액 보조사업(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다.

### **(3) 농업용수 수질관리 대책**

효율적인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전국 저수지에 대한 수질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수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농업용수원에 대하여는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측정망은 '98년에 200지점을 설치 운영하였고, '99년에는 350지점을 운영중에 있으며, 2000년에는 450지점, 2001년에는 550지점 등 수질측정망을 연차적으로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수질조사결과는 환경부, 시·도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명예환경감시원 활동, 저수지 주변청소,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중 수질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개선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9년에는 신규로 4개지구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업용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자연정화기법을 이용한 농업용수 수질개선공법 개발 등의 연구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 (1)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중산간지의 중소농가들이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면서, 토양과 수질오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지당 2억5천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 1,000개소의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단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까지 398개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99년에는 105억원을 투자하여 70개소를 조성중에 있다.

## (2)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지구당 20억원씩, 총 3,780억원을 투자하여 189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98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5개 지구를 조성하였으며, '99년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6개소를 조성중에 있다.

## (3)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벼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과 화학비료 등 오염원을 줄여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안전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99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7억원을 투자하여 16개소의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을 조성중이며, 사업성과를 토대로 2005년까지 총 136억원을 투자하여 300개소의 친환경농업시범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내용은 벼 재배에 있어 친환경농업의 핵심기술인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집중지원하여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99년에 처음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에 따른 농가 소득손실을 직접지불로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환경규제지역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농

업인에게 정부가 제시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할 경우 ha당 524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9년도 사업대상면적은 10,572ha이며, 앞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2001년부터 시행예정인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연계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친환경농업의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유통시설 확충, 구매자금 지원, 품질인증 확대 등 판매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생산·유통중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유통시설의 확충, 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확대, 소비자의 현장체험기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7.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의 추진

### 가. 농가 부채경감 및 연대보증부담 해소대책

#### (1) 추진배경

97년말 IMF경제위기 이후 농가의 농업 조수입은 대폭 줄어든 반면, 자재값이 인상되어 농업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뿐만아니라 농업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채를 진 농가는 전반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과 원금상환부담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어 농가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채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일부농가는 도산이 불가피하였고 주채무자의 도산이 연대보증을 선 농가의 도산으로 이어져 연대보증 피해를 차단할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 (2) 대책의 내용

정부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98년 11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하여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농업생산목적 중장기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상환 기일을 2년간 연기하는 대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최근 자금대출에 있어 보증인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채대책 자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운영에 특례를 마련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는 담보나 보증인 없이 간이 신용조사에 의한 대출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부채대책 추진에 따라 상환 연기되는 중장기 정책자금 규모를 총1조4천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 연기 신청('98.11.30-12.23)을 받은 결과 지원계획 대비 64.4%인 95,690농가 9,021억원이 지원 신청 되었다.

아울러 '99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장기 정책자금 71,097억원에 대해 금리를 당초 연6.5%에서 1%P를 인하하여 5.5%로 운영하므로써 801억원의 부담경감 효과를 가져 왔으며 상호금융 자금(농협 196,739억원, 축협 9,930억원, 임협 1,180억원, 삼협 223억원)에 대하여도 상환기간을 2년 연기하고 금리도 2%P 인하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농가경영을 회생시키고 고액 시설물의 유희화 방지를 위해 1,000억원을 확보하여 정책자금 대출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경영회생이 가능한 경영체에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실경영체 인수·정리지원 계획을 시행하여 경영체 인수희망자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월28일에는 농업생산목적의 상호금융 부채차입으로 고리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특별경영자금 7,000억원을 마련하여 연리 6.5%,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87천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금리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그리고 농가의 저축을 증가시키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축·임·삼협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2000년말까지 연장하였다.

5월1일 정책자금 93,000억원의 금리를 0.5%P 추가 인하하여 IMF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데 이어, 7월1일부터 농·축산경영자금 44,700억원에 대한 금리도 IMF이전 수준인 5%로 환원시켜 569억원 규모의 농가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자 무입보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중산층·서민가계안정과 태풍 및 수해의 영향으로 과수낙과 및 인삼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99년 8월 제2차 추경예산에서



특별경영자금 1조4,50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 목적 상호금융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의 시·군 지부 심사위원회에서 정밀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선정한 후 연리 6.5%(이자는 1년 후취), 2년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에 대한 대출액 약 28조원중 연대보증 대출액은 43.7%인 12조2천억원이며 이 금액의 56%에 해당하는 6조8,400억원이 농업용 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액으로 파악되어 연대보증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첫째로, 정상 상환중인 자금 6조4,800억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무입보로 보증하여 해소시키기로 하였다. 2000년 1월~6월기간중 채무자가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간이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체하고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둘째로, 연체상태에 있는 농업용 자금의 연대보증 해소를 위하여 '99년 9월부터 지원되는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의 지원대상을 연체자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우선 연체를 해소한 후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게된다. 아울러 연체채무자가 스스로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해 줄 계획이다.

#### 나. 어가 경영안정대책 추진

한국의 수산업 경영여건은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발효와 해양환경의 악화 및 어업자원의 감소, 수산물의 수입 전면개방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고비용 저생산성이 심화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연근해 및 원양어업 경영비를 지원하는 영어자금과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을 '98년보다 1,760억원이 늘어난 1조 5,570억원을 공급하고, 지난해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평균 연리 6.87%로 지원하던 어업 경영비의 대출금리를 금년에는 0.7%p 인하된 연리 6.17%로 지원하여 연간 약100억원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었다.

한편 '98년 12월 어업인들이 이미 사용중인 증장기 시설성 수산정책 자금중 '98.10~'99.12말 사이에 상환이 도래하는 원리금을 2년간 상환유예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연리 5.0%의 경영안정특별자금 318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는 달리 고금리 상호금융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이자 및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6.5%의 특별경영자금 1,800억원을 확보하여 연리12%이상의 상호금융대출금 500만원 초과 1,000만원 미만 보유 어가는 어가당 5백만원까지, 1,000만원 초과 보유 어가에 대하여는 어가당 2,000만원까지 대체·지원함으로써 연간 약117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과 2년간 상환유예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각종 수산시설사업 등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금년 들어 1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인하하여 '98년 대비 1.5%p가 낮아진 연리5%로 지원하게 되어 IMF이전으로 대출금리를 환원하는 등 어업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어업경영안정에 기여토록 하였다.

이와함께 생산자단체인 수협중앙회에서도 자체자금 2,000억원을 연리 9.75%로 지원하여 어가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었다

## IV.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시책

### 1. 쌀 산업

#### 가. 쌀 산업의 여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수, 한발 등 기상이변이 과거에 비해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발생기간도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전망은 과거에 비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하여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와 일본의 농림성에서는 인구증가, 농업용수 부족, 환경악화등으로 생산량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세계곡물 수급사정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는 세계인구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식량생산의 단수증가는 한계에 도달해 계속 늘려나가기 어렵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농지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국이 경제성장으로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최대한의 국내생산능력(Capacity)을 확보하고 부족량에 대해서는 국제시장에서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경우, 지난 96년이후 풍작과 안정적인 수준의 생산으로 세계식량 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17~18%수준(62일분)을 초과하여 안정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나,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한 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쌀의 자급은 매우 중요하다.

## 나. 중점추진시책

### (1) 적정 벼 재배면적 확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논 면적을 2004년까지 110만ha 확보하고 벼 재배면적은 92만ha를 유지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농지보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94년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지전용규제완화시책이 농지면적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97년부터는 농지법령을 개정하여 시설별, 농지전용 허용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위임되어 있던 허가권한을 상향 조정 하였으며, 진흥지역내 우량농지는 타용도 전용을 엄격히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전용될 경우에는 대체농지를 지정토록 하는 등 농지보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가용토지가 제약된 우리의 국토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토지 수요는 산지나 구릉지가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고 산지를 50%이상 이용 시에는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보완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농지감소 추세를 더욱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농지보전 차원에서 먼저, 기존농지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 농업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이용 및 경작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고 농지처분의무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놀리는 땅이 없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시행령 개정('99.4.19)을 추진하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제한을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에 대한 근거도 관련법령에 명시하는 등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2)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대책

2002년까지 경영규모 확대와 쌀 생산비 절감 등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를 주도해 나갈 쌀 생산 전문농가를 확보하기 위해 5ha이상 규모 쌀 전업농 6만호와 3~5ha 규모 쌀 전업농 4만호 등 총 10만호를 육성하여 쌀 생산량의 50%, 유통량의 80% 수준을 담당케 할 계획이며, 2004년까지 저비용 대형농기계를 보급하여 쌀 생산에서 건조에 이르기까지 일관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벼 우수품종의 조기보급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1,577개소의 우량종자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우량품종을 '98년에는 38개에서 '99년에는 44개 품종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쌀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99년까지 301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 36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전체 쌀 생산량의 40%를 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 쌀 유통혁신 및 수매제도 개편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작목반 등과의 계약재배로 품종을 단일화하여 고유브랜드화를 유도하고, 가격차등화로 양질미 생산을 촉진하여 쌀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계열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수매도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국회동의를 받아 영농기 이전에 희망농가와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일정한 선금을 지급하는 『약정수매제도』를 '9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99년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대해서는 금년 5월 국회동의를 받아 예시하고 수매계획량 697만석에 대해 584천농가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농가에 대하여는 조곡(1등기준) 40kg가마당 2만2천원에 해당하는 6,109억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로 채택되어 양곡관리제도 개선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온 용자수매제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10개업체에 한하여 5,000톤의 물량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민간용자업체인 RPC 등과 농가간에 계약에 의해서 매입품종, 물량, 용자단가를 정하고 농민이 원하는 시기에 판매를 한 후에 정산하도록 하였다.

#### (4)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 실시

고령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이양을 통한 규모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으로서 벼 재배를 3년이상 경작한 농가가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시,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새로운 직접지불제를 '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연령을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3년중 1년이상만 벼를 경작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99년부터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 규제지역내에서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하는 농가 및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ha당 52만원씩 직접지불로 보조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쉽게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고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농업에 있어 농가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급기반이 확보되어야 하고, 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홍수방지, 지하수함양,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논농업직접지불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 원예산업

###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주산단지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해 규모화된 전업적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설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 (1) 채소

##### < 노지채소(고랭지채소, 양념채소) >

##### ○ 생산자조직을 통한 규모화 및 생산·유통지원

고랭지 채소, 고추, 마늘 등 품목별로 주산단지작목반 및 농업인 중심으로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농가 스스로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가공·유통사업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수급안정을 기하도록 하고 영농규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이식기, 종합처리장, 공동육묘장 등 주산단지 생산·유통시설을 2004년까지 339개소를 지원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유통·가공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 기술개발 및 기계화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2004년까지 전작업 기계화가 이루어 지도록 생력기계화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고추 1회 수확품종 등 품종 및 재배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관측 및 출하조절을 강화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도모

농업관측센터를 설치('99년 1월)하여 농업인에게 생산 출하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면적, 출하량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의 판로를 보장하며 농·소·상·정의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유도함과 아울러 경영비 수준의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제를 실시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기해나가고 있다.

< 시설채소 >

○ 경영규모 확대 및 생력화

시설면적 5ha 이상의 전문조직을 2004년까지 530개소를 조성하고, 육묘와 재배를 분업화하여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 종합지원체계 구축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술·경영정보를 제공 및 현지순화지도로 시설원에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 시설자재 표준·규격화와 국산화

국내의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원예시설, 자재 전문업체에 대한 농업용 기자재 생산시설 자금으로 '92년부터 매년 3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안정적인 수출확대 기반 조성

오이, 가지, 토마토 등 수출가능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단지를 2004년까지 21개소를 조성하고,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표준규격출하 촉진 및 수출 수매지원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수출기반을 구



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2) 과 수

### ○ 생산·유통·가공·수출 등 종합지원사업 실시

'99년까지 생산유통조직 675개소를 중점 육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생산자조직 및 전업농을 육성하고, 작업로 개설, 판매수시설, 토양개량 등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며, 자동관수시설, 고성능방제기 등 노동력 절감기계 및 재배기술 보급으로 노동시간을 감축하여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고 있다.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출하조절, 유통기반시설확충 지원 등 산지유통체계 개선으로 유통효율을 극대화하며, 수출 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기반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 ○ 생산·유통지원사업

동일 과종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생산자조직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시설등 공동시설을 지원하며,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생산기반시설 및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조직경영체 중심의 생산·유통체계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3) 화 훼

### ○ 안정생산기반조성

절화·분화등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출하 등을 자율조

정토록 유도하며, 현대화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일괄지원하는 화훼생산유통단지를 2004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 유통개선

대도시 법정 도매시장(공판장)을 확대 설치하고 양재동 화훼공판장

출하량 확대 등 운영을 활성화하며, 규격출하품 포장재 지원 등 규격출하를 확대하고 화훼공판장에 유통정보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유통정보 수집 및 분산체계를 구축한다

○ 수출단지 육성

화훼생산·유통 지원단지중 수출유망작목 재배단지 40개소를 2004년까지 수출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출하조절자금 등의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 3. 축산업

#### 가. 한우산업

쇠고기 및 생축의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2000년대 한우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업경영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기반시설, 축사시설 및 사육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규모화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1)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행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여 개방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8개도 32개 시·군을 선정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2)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및 시장차별화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시장차별화를 위해 고품질 쇠고기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한우개량단지 중심의 한우등록 관리체계를 5두 이상의 개량농가 중심체계로 전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한 한우에 대한 출하포상금을 '98년 두당 5~10만원에서 '99년 8~12만원으로 확대하여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품질고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고급육 생산유도 및 냉장육 유통체계구축을 위하여 '99년부터 등급화 거래지역을 도서산간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등급판정을 확대('98년 124개 시·군 →'99년 160)하여 시행하고 있다.

## (3) 한우고기 소비기반 확충

한우고기의 소비기반 확충하기 위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99년까지 518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1,00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소비자 및 관련업체 합동으로 홍보·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백화점, 할인점 수퍼 등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판매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나. 낙농산업

일정수준 이상의 전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시설 및 자동화설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장비 지원 등으로 시설자동화 및 규모화로 낙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 (1) 우량젖소 보급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그동안 젖소산유능력검정사업의 추진으로 두당 산유량이 크게 향상('98 산유량 : 검정참여농가 7,252kg/두, 일반농가 5,972kg/두)되어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두수를 선진국 수준(40%)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99년에도 24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량젖소를 확대 보급할 경우 낙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낙농 제도개선을 낙농산업 선진화

새로운 낙농제도 도입과 낙농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였으며, '99년에 전남·전북 및 제주지역에 집유일원화를 실시함으로써 집유 비용 절감 등으로 낙농가의 소득증대 및 유업체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낙농진흥회를 통해 수급안정을 유도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실시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자율적인 가격·수급관리제도개선을 위해 정부가 관리해 왔던 원유가격과 수급을 낙농진흥회를 통한 민간 자율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원유의 과잉생산이나 소비 감소시 낙농진흥회를 통한 원유 및 유제품을 수매하기 위해 '99년도에 수매자금 25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원유검사의 공영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고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세균수, 체세포수, 성분(유지방) 검사를 원유검사기관(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실시토록 함으로써 우유의 품질을 향상하고 소비확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3) 자조금 사업 활성화를 통한 우유소비 확대**

낙농가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자조금 조성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우유에 대한 정보제공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우유소비 확대를 도모하였다.

## **다. 양돈산업**

개방화 시대에 선도적 양돈산업을 이끌어갈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 시설, 축사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촉진시켰고 양돈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1) 전문종돈업 육성 및 우량종돈 보급 확대**

전문종돈업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00년대 국내 종돈 소요두수의 40% 수준을 공급하기 위해 '96~2000년간 원종돈농장 5개소, 종돈농장 32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제도”의 활성화로 종돈수출 및 우수종돈 분양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2) 돼지고기 품질개선 및 수출확대 추진**

'99년 돼지고기 수출 3억 5천만불 달성을 목표로 돼지고기품질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육가공업체로 출하되는 돼지중 규격돈에 대하여 두당 3만원('98년 2만원)씩 총 251억원을 규격돈 생산 촉진자금이 지원되었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하여 20개 육가공업체에 수매자금 250억원을 지원하였고, 냉장육수출확대를 위한 8개업체에 수출현대화 시설자금, 부분육가공장시설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앞으로도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규격돈 생산 촉진자금, 수매자금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3) 위생관리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생산 유도하기 위해 수출업체와 농가간의 계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촉진 현대화자금을 냉장육 생산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2004년까지 수출도축장에 HACCP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며,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95년부터 Fooddex-Japan 참가하여 일본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라. 양계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인 양계산업의 주축이 될 전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육기반시설, 축사시설, 자동화시설 및 장비 등을 종합지원하여 양계농가의 시설자동화·규모화에 기여하였다.

### (1) 닭 개량사업 추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닭 검정소의 검정시설·장비 및 검정사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능력검정을 활성화하여 우량종계 도입을 유도하고 양계농가에 우량계종 선택지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98년 24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9년에는 173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양계계열사업 활성화를 통한 양계산업 육성

전문경영주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 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및 유통비용 등을 절감하고 양계산물유통 개선에 기여한 바 있고 현재까지 13개 계열주체(육계 9, 산란계 4)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9년에는 2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3)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노계도태 및 계란구입자금 지원

'99.10월 들어 계란가격이 500원(10개)대로 하락함에 따라 계란가격의 안정을 위해 노계도태 자금 12억원을 가공업체에 지원하였으며, 계란가 공장 및 축협에 계란구입자금 15억원을 지원하여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마.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 (1) 축산물종합처리장을 2000년까지 10개소 설치

축산물의 완전시장개방체제하에서 낙후된 축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 며 선진국 수준으로 육류유통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을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기존 2개소 포함)를 건설목표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중심으로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돼지를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고품질 육류를 공급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LPC 1개소당 처리능력은 1일 소 50~100두, 돼지 750~2,000두 규모 로서 지금까지 5개소를 완공하였고, 5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본격 가동되면 육류유통단계 축소 및 위생적인 육 류생산·공급으로 냉장·부분육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 (2) 식육판매점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소매유통구조 개선

LPC, 브랜드업체,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직판장 및 가맹점을 확대 설

치해 나갈 계획이며, 식육모범업소 지정제를 실시하여 기존정육점을 정예화·현대화 하기 위해 일정면적 이상의 영업장을 가진 식육판매점을 선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갈계획이다.

### (3) 육류 도체등급제를 확대 실시 및 식육처리 기술교육 강화

도축과 소매단계에서의 육질에 따른 차등가격거래제 정착을 위한 육류 도체등급제 실시지역을 소는 '99.10월부터 도서산간 지역 11개 군을 제외한 160개 시·군에, 돼지는 주요 집산지역 23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의 도체등급제의 성과를 보면 등급별 가격차별화로 쇠고기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였으며, 수출용 규격돈 생산을 유도하여 돼지고기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99.1.29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물등급판정 규정을 대폭 보완하고 '99.10.1부터는 소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전면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쇠고기를 공급하는 한편, 정확한 등급판정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아울러 물먹인 소 등 부정축산물 유통이 근절되는 등 쇠고기 유통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식육처리 종사자들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하여 식육처리 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를 '96년에 도입하여 '99.9까지 식육처리기능사 2,403명을 배출하였으며, 식육처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20억원을 지원하여 '98년 『식육교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99년까지 360명을 대상으로 식육 처리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국내 부존사료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2004년까지 6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1)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신규 초지조성이 어려우므로 기성초지 보완하거나 사료작물재배에 중점지원하고 용수원 개발, 목장도로건설 등 조사료 생산성 증진을 위한 생산기반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IMF이후 조사료 생산확대·이용을 위한 사료종자공급확대, 볏짚 수거용 기계보급과 볏짚의 암모니아 처리이용으로 사료 영양가치를 증진시켜 볏짚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조사료 생산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위한 대농가 교육·홍보 및 리후렛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조사료생산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2)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등

농산 부산물 및 곡물을 사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축농가가 분쇄기 및 배합기를 구입비를 '98년 80농가에 13억원, '99년 72개 농가에 23억원을 지원하여 자가배합사료 이용 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후사료와 조사료가 혼합된 섬유질사료제조시설을 '98년까지 30개소, '99년 10개소를 추가 지원하였고, 남은음식물사료제조시설을 11개소에 18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남은음식물 분리수거체제 확립을 위해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적극 협조하고 있다.

## 사. 사료첨가제 관리제도 개선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사료첨가제를 동물약품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료원료로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이에 따라 사료원료로 사용되는 아미노산, 비타민, 광물질 등을 사료업체들도 직접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가절감 및 사료품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사료(단미·보조사료)로 분류되는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성분규격과 사용 및 보존방법 등을 사료 공정 규격에 신설함으로써 새로 분류되는 단미·보조사료의 안전성도 확보하였다.

## 아.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농업으로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액비화·퇴비화 등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1)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축산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99년에는 4천개소에 8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 축산분뇨처리 표준설계도 제작 보급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종류가 다양해 농가의 선택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98년까지 축종별·규모별로 가축분뇨 적정처리모델 30개를 설정하였으며, '99년에는 축산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8종을 제작하여 8월에 보급함으로써 축산분뇨시설의 건설시공과 더불어 축산 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촉진해 나가고 있다.

## (3) 수분조절제 수급안정 및 축분퇴비 수요 확대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소요되는 수분조절재인 톱밥의 가격상승으로 축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톱밥공급을 확대하고 수분조절제 절약형 처리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축분퇴비의 품질향상과 수요확대를 위하여 농·축협에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4)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축산분뇨의 발생량 기준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축분퇴비·액비의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자.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체계의 강화

### (1) 축산물 위생수준의 획기적인 향상

식육중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대상을 확대(잔류물질 : '97년 17종 → '99년 44종)하여 위생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작업장 위생관리

기준 운영요령(SSOP)의 도입·적용으로 축산물 생산·유통시 생산자중심의 위생관리체계 확립하는 한편, 도축·가공·유통단계에 일관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본격 시행하여 도축장·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고 축산물 원료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Farm to Table) 일관된 위생관리체제로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해 나갈계획이다.

## (2) 가축전염병 근절시책 강화

2001년 이후 주요 가축전염병(9종)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 중심의 시·군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을 편성('98년 83개소)하여 자율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공동방역사업단에 대하여는 방역차량, 예방약, 냉장고, 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동방역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는 등 양축농가에 대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축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외 악성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국내 잠입우려에 대비, 질병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양축농가에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의심이 되는 가축의 조기신고체계를 갖추어 나갈계획이다.

## (3) 돼지콜레라 근절시책 추진

지속적인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2001년 돼지콜레라 근절 목표로 '96년부터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에는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라는 각오로 예방접종 100%실시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돈인 및 관련 업계의 전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교육·홍보 실시, 예방약 100% 지원(28,322천두분) 및 혈청검사(400천건) 확대,

예방접종 미실시농가에 대한 과태료(300만원이하) 처분 강화, 돼지콜레라 지역담당관 운영 및 농가현황 전산화 등을 통한 현장 점검체계 확립,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99년에 1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대책 추진결과 돼지콜레라 발생건수 및 발생지역이 대폭 축소('96년 : 전국에서 39건 발생 → '99.9 : 경기 용인에서만 5건 발생) 되었으며 면역형성율이 '98년 76%에서 '99.8월 96%로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예산의 확대지원, 혈청검사 강화,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의 규제등 강도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여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 근절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4. 임업

### 가. 산지의 자원화

#### (1)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

조림사업은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조성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역, 산지특성에 맞는 생태적조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림방법 다양화, 양적조림에서 질적조림으로의 전환, 수종별 다양한 특성을 활용한 조림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경제수조림은 경영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엽수 5,000본/ha 식재, 낙엽송 2,000본/ha 식재등 식재본수 조정(3,000본/ha → 1,500~5,000본/ha)과 조림방법을 개선하여 파종조림, 용기묘조림 추진으로 임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도로변, 도시·마을주변, 관광지주변등 산림과 공한지에 향토특색수종 큰나무조림을 실행 속성녹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며, 주요댐(호수)주변에 경관림 조성으로 지역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고 도시경관림, 미래의 숲, 생명의 숲, 명산가꾸기등 지역특색 녹화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산림정책을 전개하는 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고성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도 송이산 복원조림을 완료하고, 인가주변,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는 큰나무를 심어 조기녹화 경관숲이 조성 되도록 하였으며 내륙산간 지역에는 상수리나무, 잣나무등 경제수를 심어 복구조림을 착실히 추진, 2001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다.

육림사업은 생산임지 중심의 대단위 권역을 설정하여 163천ha를 지역완결 위주로 실행하고 있으며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IMF 실업자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5월부터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163천ha)하여 그동안 예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가꾸지 못한 우리나라 숲을 체계적으로 가꾸어 줌으로써 숲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고 정부실업대책에도 기여하였다.

숲가꾸기사업은 민간단체, 기업과 정부가 파트너쉽을 이루어 추진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이 발족된 후 숲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숲가꾸기 1일체험 등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숲 가꾸기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2) 산림자원관리 기반조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할 목적으로 임내(林內)에 시설하는 임도는

과거에는 단순히 임산물을 운반하는 통로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임산물 운반뿐만 아니라 조림·육림·임목생산 등 산림작업을 기계화하고 원목 등 각종 임산물의 수송을 원활히 하며,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오지 산림의 개발과 미이용 자원의 활용도 제고 등 산림경영을 성력화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하는 임업경영에 있어서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또한,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지역공도이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를 확대 시설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는 총 사업비 73,756백만원을 투자하여 1,102km를 시설 하였다. 1998년말까지 시설된 임도시설 거리는 13,515km로서 ha당 임도밀도는 2.1m에 이르나 일본 5m/ha, 미국 10m/ha, 독일 40m/ha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지난 30여년간의 치산녹화의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임업경제성과 생산성 향상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양질의 형질을 가진 임목자산과 그 자산을 적기에 생산 공급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노동자본과 고정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경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농산촌 노동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의 높은 노동부하와 노동비용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실정이다.

앞으로 산간오지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얻기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비록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숲 가꾸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인력에 의존한 산림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점점더 어려워 질 것이다. 즉 노동의 안전성과 효율성, 적시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와 이에 걸 맞는 경영방법의 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의 산림경영 여건상 적극적인 기계화를 추진하기에는 작업공간의 지리적인 여건, 열악한 자원분포, 임도의 미비, 전문기술인력의 부족 등이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임업기계화는 미래의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이며, 이에 더하여 점점 더 높아지는 노동임금, 외재도입여건의 악화, 안정적인 목재공급에 대한 수요증대, 영급·축적 등 점차 개선될 산림자원 구조 등은 높은 수준의 기계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노동절약형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차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임업기계장비를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기계화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기능인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밤수집기, 자동수간주사기, 식재기 등 18종의 임업기계화 개발되었으며, 다목적산림차, 소형원치, 동력지타기 등 각종 기계·장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98년말 현재 지방산림관리청 3,204대(11%), 지방자치단체 10,583대(38%), 임협 14,007대(51%)가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07년까지 336,387백만원을 투입하여 149,624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 나. 임업경영기반 확충

### (1) 사유림경영활성화

전체 산림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업의 장기성·저수익성 등으로 인한 투자기피 및 정부투자 채원 부족, 영세한 산림소유 규모 등 구조적·제도적 원인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



하여 독립가·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98 : 863 → '99 : 899)하여 집중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림사업에 필요한 보조금과 융자금('98 : 100억 → '99 : 109억)을 지원하는 등 종합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전업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산림소유자에 대해서는 협업체를 자율설립하도록 유도하여 산림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산림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담당할 협업 지도원을 양성하여 협업체에 배치함으로써 협업체를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는 산주에 대해 정부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사유림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사유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외 선진 임업기술·지식·정보보급과 현장위주의 경영지도를 통해 산주의 산림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업기술지도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 (2) 단기소득임산물 개발·지원

다양한 임산자원의 소득화 촉진과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소득 품목인 밤·표고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매년 7천만불 정도를 수출하는 밤의 우수 품종 개발보급, 노령목 갱신, 병해충 방제 및 작업로 개설을 적극 지원하며,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표고의 생산체계를 노지재배에서 시설재배로 전환해 나가고, 표고자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별채구역지정 등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품성 제고로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생산자조직 육성·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 조경수·분재·야생화·난 등 관상자원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로 우리토종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확대 등 산업화기반을 마련하였다.

### (3) 임산물 가공산업육성

식용임산물의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방안으로 밤슬라이스·밤파자·표고스넥·표고고추장·산채류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국내수요 창출과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산재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목탄·목초액 등의 신기술을 이용한 국산재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과 간벌재를 활용한 톱밥·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환경임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목조주택자재 국산화를 촉진('98 : 18% → 2002 : 30%), 지역특산 목가공품 개발, 목제품질인증제 도입, 수입대체를 위한 폐목재활용('98 : 36% → 2002 : 50%)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매장·집하장 등의 유통시설을 '99까지 115 개소로 확대·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유통체인망 확충,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인삼지주목·전선드럼소·낙엽송 집성재 등의 신제품 개발과 대량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한 임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물류비용 절감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포장·규격출하, 국산재 활용과 유통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유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채허가·목재생산량·가격정보 등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직거래 및 구판업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경제림 조성 시책은 국산재 가공산업 육성이 시급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질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톱밥, 목탄·목초액, 보드류용 및 집성재 원료로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톱밥의 경우 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생산시설 부족으로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숲 가꾸기 산물을 현지에서 톱밥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지난 해 국유림관리소에 8대의 톱밥제조기를 공급한 바 있고, 올해에는 20대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도 목재집하장을 설치한 임협을 중심으로 톱밥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제재부산물인 죽데기와 간벌재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국유림관리소와 임협에서 공급하려는 톱밥량은 총 33만<sup>m</sup>에 이른다.(국내 총수요량 283만<sup>m</sup>)

소경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해 금년도에도 목탄·목초액 시설 4개소, 목각 생산시설 5개소 등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3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업계의 원자재 확보 원활 및 운영 활성화와 국산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산재 구입자금(지원계획 : 101억원)을 민간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토목용 주요 건축 자재인 합판·보드류 시설개체(改替)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산 간벌재 및 폐목재의 재활용을 촉진토록 할 것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거푸집용 합판, 가설재 등이 「건설폐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 수집대상 품목으로 포함되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파티클보드 등 국내 임산업계의 원자재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 밤, 표고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생산자의 소득보장과 수요 확대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7개소 지원할 계획이다. 밤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10만톤을 넘는 주요작물로 일본, 유럽 등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가공품인 마론그라세, 밤음료, 밤과자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4) 산촌종합개발

우리나라의 산촌은 국토면적의 46%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국토공간상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주공간으로서 농림업의 생산기반이며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핵심공간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개발여건이 유리한 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산촌은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었으며 농어촌 또는 오지개발사업 등 정부의 투자우선순위에서도 소외되어 산업기반이나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낮고 공동화현상이 심화되어 산촌인구의 노령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산촌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요청되었으며, 산림청에서는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추진하여 낙후된 산촌지역을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하므로서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국민에게는 휴양장소를 제공할 목적으로 '95년부터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4차산림기본계획이 끝나는 2007년까지 240개마을을 목표로 현재까지 9개마을을 완료 하였으며 38개마을을 조성중에 있다.

주요사업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의 신·개축,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마을회관, 마을안길 정비 등의 정주기반조성사업과 소득원개발을 위한 공동저장·판매, 이용가공시설, 산나물, 산지과수, 관상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산촌개발을 통하여 산촌지역의 진흥은 물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마을로 육성, 나아가 지역임업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임업전문인력 양성

산촌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산림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업기능인 중·장기양성계획』에 따라 영림단을 연차별로 조직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신규로 38개단 510명을 조직토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규 조직된 영림단의 조기정착을 위한 장비지원으로 8종 480대, 566백만원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임업기능인 교육·훈련은 현장위주로 하여 교육과정별(신규, 보수, 순회) 차별화를 도모하고, 임업기계의 운전조작 기술 및 점검·정비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직업으로서 영림단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충분한 작업물량 확보와 시기별 적정배분토록 하고 상조회 운영을 통한 구성원간의 결속력 강화 및 복지증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3주 이하의 단기 기능인력양성에 치중함에 따라 현장의 작업을 감독·관리하고, 산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현장 임업전문가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산림경영관리자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99년에는 120명 양성을 추진중이다.

## (6) 산림복합경영의 추진

산림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이나, 임업은 목재생산의 장기성·저수익성과 소유 규모의 영세성으로 산업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목재중심의 산림경영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임산자원의 농업적 활용을 통하여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해 발굴·보급되기 시작한 3개 유형의 복합경영모델을 토대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7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통해 이론적·정책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 (7) 산림휴양시설의 확충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산업화로 산림에 대한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에게는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주와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98까지: 72개소 → '99: 26개소 → 2007년까지 138개소)과 산림욕장('97까지: 28개소 → '99: 15개소 → 2007년까지 83개소)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기존 휴양시설의 내실화 및 휴양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미지 통합사업(C·I)을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신규조성사업은 산촌종합개발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을 민박, 향토음식점등으로 육성하는 등 산촌주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다. 산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우리 나라는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용토지의 부족은 심화될 것이다. 최근 우량농지의 타용도 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 쌀 자급기반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농지전용을 대체

하는 산지활용이 요구되고 있는 한편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녹색공간 등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산림 보전과의 조화가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국내임산자원의 빈약으로 목재자급도가 현재7%에 불과하고 1998년도 목재등 임산물 수입액이 1,006백만\$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우리 산림의 임업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산림의 보전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용·개발할 산림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산림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보전임지는 가급적 보전하고 새로운 토지이용수요는 준보전임지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준보전임지의 활용촉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1997. 1. 1일부터 총 사업부지면적중 준보전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였다.

둘째,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을 축소 조정하였다. 즉, 준보전임지로서 국도·고속도로·철도연변 및 정기항로로부터 가시거리 1천미터 이내의 산림 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가 형질변경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였다.

셋째, 준보전임지에 대한 신고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대상을 확대하였다. 1만제곱미터 이내로 산채·약초·특용작물·관상수를 재배하는 경우와 2천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토록 하였다.

보전임지는 가급적 산림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보전임지는 전체산림의 77%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지역이고 보전·준보전임지로 구분할 때 개발예정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용·산업용 시설이나 시설성격상 보전임지에 임지가 불가피한 것은 전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전임지

전용허가대상을 추가하여 생산임지 안에서 화장장·납골당과 종교시설의 개축·증축을 허용하였으며 공익임지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 라. 임업기술개발 보급

가시두릅보다 5배 이상 작업효율 증진시킬 수 있는 민두릅 대량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98-43184)하고 '99년 4.5천본을 보급하였으며 2000년 31.5천본, 2004년까지 4,200천본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밤나무 9품종, 호도나무 4품종, 다래 1품종 등 유실수 14품종의 신품종을 육성개발 내충성 내한성, 다수확 등의 품질을 향상하였으며 분재 소재의 속성·대량생산 기술개발하고 재배기간을 단축 및 연중 재배가 가능하게 하였다.

그외 흡입식 밤 수집기를 개발하여 기술이전하고 생지엽을 이용한 목축용 조사료, 목질계 생활폐기물의 환경친화형 재활용기술, 인공종자배 이용 소나무·낙엽송 대량복제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대기오염에 견디는 유전자, 중금속 흡착 유전자, 내염성 유전자를 포플러에 삽입시켜 환경정화 능력 향상시키는 데도 주력하였다

## 마. 해외 임업협력의 증진

### (1) 자원협력 강화

산림자원보유국과의 임업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동남아·대양주지역 9개국과의 임업협력약정 체결('99년: 베트남, 미얀마) 및 협력회의('99년: 제14차 한·인니)를 개최하여 산림의 이용·개발, 해외조림 및 목재자원



확보 등에 힘쓰고 있으며, 개도국 임업공무원('99년: 11개국 19명)을 초청하여 산림경영과정 훈련을 실시하는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구 산림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FAO산림위원회, ITTO, 각종 협약 등 산림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장기·안정적 목재공급원을 확보하는 한편 '92년 리우선언 이후 강화되고 있는 환경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아 탄소 배출권(emission trading)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조림사업은 향후 조림 자체의 투자수익과 더불어 기업의 환경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이기도 하다.

해외조림 확대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2000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대('98 : 65억원 → '99 : 91억원 → 2000 : 132억원)하는 한편 해외조림업체 자부담 경감을 위해 조림사업비 100%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 (2) 임산물 수출입

임산물 수출은 '90년을 정점으로 하여 매년 감소해오고 있으나, 올해에는 주 수출대상국인 일본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중국으로의 컨테이너 합판, 유럽으로의 침엽수 합판, 일본으로의 밤·송이·표고 수출 확대가 전망되어 '98년도 수출실적인 241백만\$을 초과하여 올해 목표 285백만 \$은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임산물 수출구조는 수출시장이 일본·중국에 편중('98 전체 수출의 71%)되어 있고 수출품목이 한정(합판·섬유판·마루판·밤·송이·표고 수출이 전체의 71%)되어 있으며 수출업체의 규모가 영세한 편이다. 이에 따라 '99년부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주 수출대상국 또는 수출유망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미국 7월, 일본 9월)하고 있으며, 수출품목 발굴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신

규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하고 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장기 임산물 수출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한 임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 포장·운송비, 포장기계·운송차량·선별기 구입비 및 목재·단기소득임산물 원료 구매자금을 확대지원('98 : 406 → 451억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수출대책회의·간담회 개최 및 수출현장 방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출현장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자금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수출증대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 수입은 IMF 영향으로 위축되었던 국내경기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어 주요 임산물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기존의 조정관세 품목인 합판, 표고버섯, 환봉, 이썬시개, 화강암제품에 섬유판과 파티클보드를 추가하여 이들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 5. 수산업

### 가. 연근해 어업

####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최근들어 어업자원의 감소, 주변국가의 EEZ선포, 해양오염 심화 등 주변의 어업환경 변화와 IMF의 영향으로 인한 어업경비의 증가로 대부분 어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업환경변화에 맞도록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보완발전 시키는 등 개혁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동사업을 국정 100대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안어업은 지역실정과 어업자원 수준에 맞게 허가정수

조정 등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며

근해어업은 EEZ확정시 영향이 크거나 어업경쟁력이 저하된 대형선망, 대형트롤, 대형기저(외끌이,쌍끌이), 서남구기저, 근해통발, 근해채낚기,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등 8개 업종을 위주로 우선 감척해 나가고 또한 경쟁력이 열위인 업종에 대하여도 감척범위를 확대해 나가며

이와 별도로 유사업종 통폐합 등 어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자율관리 어업정착 등 어업자원관리를 강화하여 연근해 어업자원을 보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9년도에는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영향받는 어업에 대한 우선지원을 위해 낭장망, 안강망 등 연안어업의 감척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며 동 협정과 관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형기저 외끌이(18척), 대형기저 쌍끌이(96척), 대형트롤(24척), 근해채낚기(238척), 근해통발(165척), 근해유자망(106척), 근해연승(65척) 운반선 32척 등 744척을 감척할 계획에 있으며 한·일 어업협정 관련 영향이 없는 어선은 “일반감척사업”으로 근해 안강망(68척), 대형선망(12척) 등을 감척할 계획이다.

## (2) 주변수역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

UN해양법 발효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의 EEZ선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능동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어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 '97.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수역의 어업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의 자원전문가 협의회 구성과 동북아 자원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98년까지 3,819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34천ha를 시설하였고, '99년에도 449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시설중에 있으며, '94년부터 대단위 도립수산종묘배양장 7개소 시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98년까지 2개소를 준공하였고 '99년에는 3개소를 준공하고 2개소는 공사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어장 자원조성의 가속화와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한 수산종묘 20백만마리를 매입하여 연안어장 방류를 추진중이다.

불법어업 근절로 어업질서를 조기 정착하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검찰, 경찰, 해경, 시도, 수협 등 관계부처와 공조체제를 구축, 불법어업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상습·고질적인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벌금상향조정, 구속수사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불법어선에 대하여 '98년까지 247억원을 지원 2,558척을 합법어업으로 전업 조치하였고, '99년에도 33억원(330여척)을 지원하고 있는 등 불법어업 근절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 (3) 어로시설의 현대화

'98년에는 연근해어선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조업을 위하여 노후어선, 기관대체 및 어선장비·설비개량 등에 293억원을 지원하여, 16~21년 이상의 노후어선 2,800톤을 대체 건조하고 연료과다소모형 저효율 기관 34천마력과 노후된 어선 149척의 장비·설비를 개량하였으며, 어선용 기계 1,312대를 대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하였다.

## 나. 해면양식어업

'99년도 해면양식어업은 원양 및 연근해 어선어업 생산여건 악화로 감소가 예상되는 수산물을 양식어업 육성을 통하여 보전 생산하고자 새로

은 양식어장을 확대개발하고 양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양식어업 경영안정에 주력하였다.

고급 수산물 증산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양식어장 개발은 총 사업비 331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과 관광 등이 연계된 복합양식단지 5개소를 조성하고, 어류양식장 105개소와 내과성가두리양식장 4개소, 전복·가리비 등 고소득 양식어장 79ha를 새로이 개발하여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502ha의 마을어장을 생산성이 높은 양식어장으로 개발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지선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식기반 확립을 통한 양식어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양식어업 기반시설에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자하여 어·패류 종묘생산시설 18개소, 사료저장시설 43개소, 사료제조기 9대, 개량부자 247천개 등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연 1회 이상 전 어업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관리 어업권을 정비하고, 새로운 양식품종 및 기술 보급과 어장의 단위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어촌에 상주하고 있는 수산기술관리공무원을 활용, 적정시설 지도와 함께 어장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양식어장 평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악화되고 있는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39억원을 투자하여 어장바닥갈이, 오·폐물수거 등 어장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 다. 내수면양식어업

내수면양식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대단위 양식단지조성, 담수어 양어장시설 등으로 시설 현대화를

통한 합리적 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철갑상어 시험양식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전략적인 개발을 위하여 '98년도에 7,400백만원(28개소) 지원에 이어 '99년도에는 6,000백만원(16개소)를 확보하여 토산품종 및 집약생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 라.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 조치로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과 베링공해, 북대서양수산기구(NAFO)수역 등의 주요어장이 상실되고,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양정책자금을 '98년에는 4,160억원 지원하였고 '99년에는 4,670억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자원을 보유한 기니아, 세이셸 국가등과도 새로운 어업협력을 통하여 해외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입어대상국 등을 대상으로 현지투자·합작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여 장기적인 해외어장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강화로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도입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8~'99년도에는 북해도 트롤어선 8척에 대한 감척예산 105억원을 확보하여 감척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북해도수역내 콩치붕수망 감척예산 47억을 요구중에 있다.

## VI.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시책

### 1. 다양한 소득원 개발

#### 가.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확대 도모

농촌지역에 농외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높여주고,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이 농촌에 정주할 수 있도록 1984년부터 농공단지 조성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9년 6월말까지 총 295개소의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이중 277개소의 농공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었고,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에 2,673개의 업체가 입주 가동중이며, 90천명이 취업(현지인 61천명)하여 연간 9,891억원('97년 기준)의 임금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은 고용증대와 생활활동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외에 단지 조성공사와 공장건설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촉진, 지역연고기업의 투자활성화, 서비스업의 발달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 < 농공단지 조성실적 >

구 분	합 계	'94년 까지	'95년	'96년	'97년	'98년	'99.6
단 지 수(개소)	295	269	7	10	6	3	-
연 면 적(천평)	13,407	12,250	295	471	289	102	-
입주기업(개소)	3,825	3,716	59	45	5	-	-

## 나. 농촌휴양자원개발

농촌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와 지역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농원은 '84년, 휴양단지 '89년, 민박마을은 '9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84년부터 '98년말까지 국고융자 1,524억원을 지원하여 640개소(관광농원 397, 휴양단지 8, 민박마을 235)를 조성하였으며, '99년에는 88억원을 지원하여 21개소를 새로이 조성하고 있다.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의 '98년 한해동안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관광농원 등에 다녀간 내방객이 503만명(관광농원 428만명, 휴양단지 29만명, 민박마을 46만명)에 이르고 있는 등 도·농교류의 매개체로서 역할과 인근지역의 농특산물 판매확대 등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다. 한계농지 개발 추진

대형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를 지역여건을 감안, 다목적으로 이용·개발하기 위하여 '94.12월 농어촌정비법을 제정. '95. 6월에 시행함으로써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99년도에는 2개소(계속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 라. 어촌관광 개발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의 소득원 개발, 어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90~'96년까지 67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7년부터는 안정적인 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개소당 30억원씩 2개년사업으로 투자하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현재 전남 보성군에 국고 15억원을 국고융자하여 '9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다.

또한, '98년부터는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등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4년까지 8개지역에 개소당 60억원씩 3개년사업으로 어촌민속 전시관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 현재까지 전남 완도(20억원), 경남 거제(10억원), 강원 삼척(10억원) 등 3개지역에 국비 40억원을 지원하여 2000년, 20001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업인·어촌을 활성화 하고 어촌관광산업화를 위한 모델개발과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업활동의 장(場)인 어촌을 어로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스킨스쿠버, 바다낚시 등 체험관광어촌으로 개발하여 21C 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을 추진 준비중에 있다.

이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 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5개마을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독창성이 있는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하고 1개마을당 20억원을 투자하여 체험어장, 진입도로, 민박시설, 주차장, 휴게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관광어촌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 마. 어업의 소득원개발 지원

어업의 소득원개발사업은 그동안 산업화에 따른 바다의 매립, 간척과 연안어장 오염진전 등으로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국제적인 자원의 자국화정책 등 어려운 수산업의 여건으로 어가소득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농가소득 대비 '97년도 87%수준) 어촌경제를 활성화시켜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1994년부터 관광·부업시설, 복지시설 등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는 '98년까지 411억원을 투입하여 낚시터, 유람선, 체험어장, 활어회센터, 민박시설, 공동목욕탕 등 10여종의 어촌부업·복지시설을 130개소 지원완료 하였으며, '99년에는 100억원을 투입하여 18개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2. 기초생활환경 개선

### 가. 현대적 생활환경을 갖춘 문화마을 조성

면 지역의 중심마을에 마을기반시설, 주택신축, 복지·문화 및 환경보전시설 등을 갖추어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면서 생산기반, 유통, 가공시설사업과도 연계시켜 나갈 계획으로 '91년부터 '98년까지 105개지구를 착수하여 72지구를 완료하고, '99년에는 682원을 들여 10개 지구를 신규로 착수하여 21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위해 10년간 4조원 지원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총4조원을 지원하여 매년 25천호씩 25만호를 개량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부터 IMF관리체제에 의한 경제위축과 정부예산의 감소로 '99년에는 3,484억원을 지원 17,420동의 개량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도 예산의 감액이 예상되어 당초에 계획된 목표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재원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농어촌주택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총소요액	'95까지	'96년	'97년	'98년	'99년	2000이후
농어촌주택개량	40,000	4,000	4,000	4,000	2,020	3,484	22,496
(농 특 세)	(8,000)	(1,200)	(800)	(800)	(680)	(408)	(4,112)

#### 다. 농어촌도로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

지방양여금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제정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94년 7월~2004년 6월말까지 10년간 농어촌지역에 투자되는 농어촌특별세 총 15조원중 1조2천억원을 농어촌 도로에 투자하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당초 2004년까지 3조 2,210억원(지방양여금 2조630억원, 지방비 1조1,580억원)을 투자키로 되어있는 계획을 상향조정하여 총 4조 4,210억원을 투자, 17,168km의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여 포장률을 '98년말 27.6%에서 2004년까지 45% 수준으로 신장할 계획이다.

### <농어촌도로 정비계획('94~2004년)>

구 분	합 계	'94~'97	'98	'99	2000~2004
사 업 량 (km)	17,168	4,749	766	517	11,136
사 업 비 (억원)	44,210	13,513	3,672	3,580	23,445

※ 재원별(억원) : 농특세 1조 2,000, 양여금 2조 630, 지방비 1조 1,580

#### 라.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

상수원 오염과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주민에게도 도시지역 주민과 같이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94~2004)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광역 상수도 및 지방상수도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자연마을에 암반 관정을 개발하여 '98년까지 총 3,210억원을 투자하여 1,864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99년도에는 722억원을 투자하여 425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8,500억원을 투자하여 총 5,000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98년까지 총 948억원을 투자하여 40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99년도에는 총226억원을 투자하여 신규 12개소를 포함하여 49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2004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자하여 2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마.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농어촌의 생활하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 '95~'98년까지 832개 마을에 1,529억원을 지원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99년에는 247억원을 지원하여 139개 마을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보전 및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해

'95~'98년까지 오염소하천 216km를 정비하였으며, '99년에는 176억원을 투입하여 44km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 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95~2004)을 추진하고 있다. '9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10개 사업을 추가하는 등 앞으로 2004년까지 총 2,040억원을 투자하여 78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ppm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8년부터 '98년까지 510억원을 투자하여 88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19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중설 포함)를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종합대책('96~2005)에 의하여 18개소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91년부터 '98년까지 2,894억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중에서 설계유입수질보다 실제 유입농도가 높거나 질소·인 처리시설 등이 미흡한 25개소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을 축산폐수공공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폐수의 수거 운반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특세 생활여건 개선분야 사업내용>

(단위 : 억원)

사업명	소관부처	총 소요액	'94	'95	'96	'97	'98	'99	2000 이후	개발목표
○농어촌도로	행정자치부	12,000	650	1,200	1,200	1,000	840	759	6,351	○농어촌로 17,168km 확·포장
○농어촌주택	행정자치부	8,000	400	800	800	800	680	408	4,112	○농어촌주택 25만호개발
○농촌생활용수		12,500	265	1,000	1,000	1,000	893	948	7,394	
- 암반지하수	농림부	8,500	130	800	800	800	680	722	4,568	암반관정 5,000개소 개발
- 지방상수도	환경부	4,000	135	200	200	200	213	226	2,826	면지역 215개소 설치
○농어촌하수처리사업		7,000	-	800	750	700	560	506	3,684	
- 마을하수도정비	행정자치부		-	450	413	375	291	247	1,974	
- 면단위하수도정비	환경부	5,000	-	150	137	125	97	83	658	농어촌마을 2,500개 정비
- 오염소하천정비	행정자치부	2,000	-	200	200	200	172	176	1,052	농어촌소하천 1,000km정비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비지원	환경부	2,040	-	225	225	225	150	150	1,065	○78개소(시·군당1개소)
계		41,540	1,315	4,025	3,975	3,725	3,123	2,771	22,606	

※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 총예산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포함

※ 지방비 제외 (국비중 양여금 포함)

### 3. 교육여건 개선

#### 가. 농어촌학생 대학입학기회 확대

##### (1)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례입학 확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농어촌 대책의 일환으로, '96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한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는 농어민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이농현상을 방지하는 등 농어촌 육성·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학생 등의 대학입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원 외 선발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을 '96년 입학정원의 2%에서 '97학년도부터 3%로 확대하였고, 대상 범위를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생은 물론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 하도록 하여 농어민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였다.

- '96 : 총 265개 대학 8,967명 입학
- '97 : 총 300개 대학 14,127명 입학
- '98 : 총 313개 대학 16,017명 입학
- '99 : 총 326개 대학 15,185명 입학  
(대학 169개 대학 9,118명, 전문대 157교 6,067명)
- 2000 : 총 332개 대학 18,572명 선발예정  
(대학 174개 대학 9,957명, 전문대 155교 8,615명)

##### (2) 농어촌지역에 전문대학 설립

농어촌지역의 전문대학 설립요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고교를 개편, 8개 공립전문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여, 거창·남해 전문대학은 '96년에, 경도대학은 '97년에, 강원전문대·옥천전문대·청양대·담양대학을 '98년에 개교하였고, 장흥대학은 '99년에 개교하였다.

## 나.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 (1) 공립학교 수업료, 입학금 면제범위 확대

농어촌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94. 8월 교육부령인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읍·면, 도서·벽지 소재 공립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범위를 15%에서 30%까지 확대하였다.

### (2) 영세농어가 자녀학자금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농어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부모가 읍·면지역 및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규모 1ha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사업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9도에는 92명을 대상으로 592 지원하고 있다.

### (3)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핵심 농업인후계세대 육성, 자영농과생의 기숙사생활을 통한 협동의식 및 영농의욕 고취, 농업인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지원계획을 확정('85.2.21)하여 '8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2,709명에게 1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4) 새마을장학금 지원

농업계고교 재학생중 자영농과생 전원과 일반농과생중 영농학생이나 4-H회원을 우선 선발,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3,000명에게 4억8천만원(1인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 '99년도 농어업인 자녀교육비 지원계획 >

구 분	실업고생 학자금	자영농과생 급식비	새마을장학금
인 원	92천명	2,709명	3,000명
금 액	592억원	10억원	4억8천만원

####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기존의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과 병행하여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2,10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학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융자금의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된 다음달부터 융자받은 기간의 2배기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등상환 하도록 하고, '99년에는 2만3천명에 대하여 23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 라. 농어촌 출신 학생 기숙사 건립

문화관광부에서는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 숙식비 절감, 면학분위기 조성과 농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특세를 재원으로 지방단위중심 도시지역에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위한 기숙사를 '95년부터 9개소를 건립 추진중이다.

건립규모는 연건평 2,000평 규모로 3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관, 편의시설(도서실, 식당 등), 체육시설(체력단련실, 농구장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출신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게 될 계획이다.

'99년도까지 경북, 경남, 충북, 전북, 전남 등 5개소는 개원운영중에 있고, 충남은 2000년도에 개원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2001년 완공 목표로 2개소는 건립중에 있으며 2000년이후 2개소(경기, 강원)를 추진할 계획이다.

#### **마.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농어촌주민의 문화이용공간 확충 및 건전여가 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940억원을 투자, 100관의 공공도서관을 농어촌지역에 건립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99년에는 5개 도서관에 건립비를 각 10억원씩 50억원을 지원하고, 도서 구입비로 166관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 4. 농어업인 연금제도 실시

###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WTO체제출범 및 UR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통상압력 강화 등으로 농업인의 노후 생계보장과 노령 농업인 등의 은퇴후 소득보장제도로써 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내에 국민연금을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94. 6월 농어업인연금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95. 7.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시행 성과

농어업인연금제는 '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자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하였으며, '99년3월현재 가입자수는 209만명(농업인 86, 비농업인 67, 납부예외자 56)으로 정착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농어업인연금제도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부과, 급여체계를 적용하되,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95년 시행당시 60세 이상 65세미만의 고령 농어업인에게 한시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하여 83천명이 가입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에 해당하는 2,200원을 매월 지급하고, 관리운영비 전액을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2004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다.

#### <농어업인연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총소요액	'95	'96	'97	'98	'99	2000이후
8,000	455	598	696	616	579	5,056

한편 효도연금보내기 운동을 사회운동 차원으로 적극 전개하여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농촌에 계신 부모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토록 유도함으로써 보험료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모봉양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있다.

##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 연금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자진납부 등의 연금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므로 특례노령 등에 대한 연금급여 혜택, 유족·장해연금등의 연금수급사례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선납제도, 분기납제도등의 납부편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매월 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중이다.

## 5. 의료여건 개선

### 가.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 (1)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부담 경감

소득형태, 소득과약률, 의료이용률이 유사한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제도는 조합내에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원활한 재원조달, 조합별 책임경영 및 조합간 경쟁에 의한 효율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조합간에 연령별 인구구성, 조합간 재정력 격차 발생, 일부 소규모 조합의 경우 위험분산 기능이나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미흡하여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고 퇴직, 거주지이전 등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경우 조합간 자격관리가 연계되지 않아 누락자 및 이중자격자가 생기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96. 11월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또한 227개의 지역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97.12.31)되어 '98. 10. 1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의료보험법에서는 조합별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지역 단일 보험료 부과체제로 변경하여 고소득층이 더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하도록 하였다. 특히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산정된 보험료의 15%를 경감하였고, 도서·벽지 지역주민에게는 보험료의 50%를, 노인단독세대·모자세대·소년소녀가장세대·장애인세대중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30%를 경감토록 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켰다.

## **(2) 노인의료비 공동부담사업 실시**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을 가장 어렵게 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입원급여비 전액을 직장조합, 공·교 의료보험조합등 모든 보험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부담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촌주민에 대한 지원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97년 하반기부터 대상을 60세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3)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 확대 실시**

모든 보험자가 공동부담하는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의 규모를 현행 건당 120만원이상에서 '97하반기부터 100만원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노인 및 고액의료비 공동부담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조합의 부담률 상한을 '96년부터는 보험료 수입의 20%에서 25%로 인상하여 실시한 바 있다.

#### (4) 건강진단 실시 및 급여기간 연장

농업인 등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험급여 확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40세이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95년부터 당뇨, 고혈압, 간기능장애 등 성인병에 대해서 격년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98년 10월부터 1개월 동안의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실시하고, 보험급여기간을 '98년 300일에서 '99년에 330일로 연장하였으며, 2000년에는 급여기간 제한없이 연중 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여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농어촌도·농복합형시를 포함한 군단위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및 산하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공공보건기관의 기능보장을 위한 진료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농어촌지역의료서비스 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94 ~ '98	'99	2000
소계	3,982.5	3,140	496	346.5
○ 공공의료기관 기능보장	2,081	1,800	396	285
○ 민간의료기관 금융지원	1,501.5	1,340	110	61.5

## (2)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산간오지·벽지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의 진료기능강화 및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3)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도입

농어촌지역의 한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중보건한의사제도를 도입하여 '98년까지 10명의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고 '99년에는 공중보건 한의사 59명을 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친환경 · 품질인증 농산물은 벌레가 먹고 못생겨도 더 맛 있고 안전해요

유기재배



농약 · 화학비료 사용않고 재배

무농약재배



농약 사용않고 재배

저농약재배



농약 1/2이하 사용 재배

일반재배



농약 · 비료 적정사용 재배

품질인증 농산물은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9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사업 시행내용보고서

---

1999년	12월	일	인	쇄
1999년	12월	일	인	쇄

발행: 대한민국 정부  
편집: 농림부 농업정책과  
인쇄: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

<비 매 품>